

漢詩 문학에 나타난 三千宮女 연구(Ⅰ)

— 唐代 작품을 중심으로

南在澈*

I. 서언	III. 三千宮女의 문학적 의미
II. 三千宮女의 개념과 유래	IV.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낙화암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三千宮女’라는 표현의 근원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역대 문헌을 바탕으로 三千宮女의 개념과 유래를 검토하고, 이어 唐詩에 나타난 三千宮女의 문학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三千宮女는 원래 구체적인 궁녀의 수효를 나타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막연히 많은 궁녀의 수효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三千宮女가 하나의 전형화된 표현으로 굳어지게 된 것은 중국의 唐代 한시를 통해서이다.

唐代 한시에 나타난 三千宮女의 문학적 의미는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화려한 궁궐에 대한 代喻 또는 아름다운 자연의 擬人化 대상이다. 둘째, 총애를 받지 못하여 소외된 수많은 궁녀에 대한 정형화된 명칭이다. 셋째, 宮外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宮內 신하들에 대한 寓意의 대상이다. 넷째, 사치와 향락에 빠져 망국을 초래한 군왕에 대한 代喻의 대상이다.

주제어 : 낙화암, 궁궐, 자연, 궁녀, 신하, 군왕

*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I. 서언

우리 역사에서 ‘三千宮女’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근자의 언론 기사에 따르면, “의자왕에게는 항시 따라붙는 단어가 있다. 삼천궁녀이다. 우리는 수많은 궁녀가 백마강(금강)에 몸을 던졌다는 낙화암의 전설을 떠올릴 때면 으레 삼천궁녀를 연상한다. 삼천궁녀는 역사적 사실일까? 삼천궁녀를 처음 쓴 사람은 조선 중기 문신 김흔(金訢)이다. 그가 자신의 문집 『안락당집』에 실은 ‘낙화암’ 칠언고시에 나온다. 원래 삼천궁녀는 많은 궁녀를 지칭해 쓰는 표현이다. 중국 사서에도 적잖이 나오는데 진시황도 삼천궁녀를 쓴다. 한자에는 평측(平仄)이 있다. 일종의 높낮이로 많은 숫자를 표시할 때 나란히 놓인 삼천(三千)을 쓴다.¹⁾ 불교에서 말하는 삼천세계도 마찬가지이다. 김흔 역시 많다는 의미에서 삼천궁녀를 썼다.”라고 하였다.²⁾

위 기사의 내용은 仄仄에 대한 고려 때문에 많은 숫자를 표시할 때 ‘三千’을 쓴다고 한 설명 부분은 재고를 요하지만,³⁾ 이를 제외하고 본다면 현대 교양인의 생각을 비교적 잘 반영한 것으로, 이제 三千宮女가 많은 수효의 宮女를 뜻한다고 보는 것은

-
- 1) 평측과 관련한 이 부분은 “『백제뉴스』 2017년 7월 31일자, 「삼천궁녀의 오해와 진실」(〈기고〉 이용우 부여 군수)”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http://www.ebaekj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006>).
 - 2) 『스카이에일리』 2021년 3월 10일 자, 「정재수의 新삼국사 산책 / 의자왕과 삼천궁녀의 진실, 삼천궁녀는 의자왕을 낙인찍은 문학적 표현」(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25204).
 - 3) 주지하다시피 근체시 平仄法에는 ‘二四不同’, ‘二六同’, ‘一三五不論’ 등의 원칙이 있다. 仄仄이 각구의 둘째 글자와 넷째 글자는 반드시 같지 않아야 하고, 둘째 글자와 여섯째 글자는 반드시 같아야 한다. 짝수 차례의 인접하는 글자는 평측이 서로 달라야 한다. 그리고 홀수 차례의 첫째 글자, 셋째 글자, 다섯째 글자는 평측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三·千·宮·女’ 네 글자는 七言句에서의 경우 거의 1·2·3·4번째 또는 3·4·5·6번째 자리에 배치가 되는데, 이 경우 홀수 차례에 해당하는 글자인 ‘三’(平)과 ‘宮’(平)자의 평측은 중요하지 않다. 이 자리에는 측성 글자가 와도 된다. 실제로 사용되는 용례는 없지만, ‘九’(仄)자를 사용한 ‘九千宮女’라는 표현도 평측으로만 보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원리로 볼 때, 평성인 ‘千’자에는 측성인 ‘女’, ‘舞’, ‘黛’ 등의 글자가 어울리므로, ‘三千宮女’, ‘宮女三千’, ‘三千歌舞’, ‘歌舞三千’, ‘三千粉黛’, ‘粉黛三千’ 등의 어휘가 가능하고, 측성인 ‘百’자에는 평성인 ‘宮’자가 어울리므로, ‘三百後宮’ 등의 어휘가 가능하다. 뒤에 다시 언급하려니와 秋江 南孝溫은 「扶餘懷古」에서 “三百後宮齊喪生”이라는 표현을 쓴 바 있다. 평측의 원리상 ‘三百後宮’과 ‘三千宮女’는 가능하지만, ‘三百宮女’와 ‘三千後宮’은 불가능하다. 참고로 많은 수효를 나타내는 한자 어휘에는 ‘三千’(平平) 외에 ‘三百’(平仄), ‘八萬’(仄仄), ‘九萬’(仄仄) 등도 가능하다.

통설이 되었다. 三千宮女를 문학적 표현이라고 여기는 이러한 생각은 사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정립되어 온 것인데, 황인덕은 부여 낙화암 전설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검토한 2001년 논문에서 “고려조까지의 시에서는 ‘삼천’궁녀란 말이 아직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말은 대략 조선 초에 들어오면서 널리 쓰이기 시작했던 듯하다. 또한 역사서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주로 시를 통해 확인되고 있음으로 보아 문학적 과장 표현에서 발단되어 시와 구전에 의해 널리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며, 문학적 과장 표현의 실례로 “김흔(金訢: 1448~?)의 〈낙화암〉, 조위(曹偉: 1454~1503)의 〈부여회고 차 가정운〉, 민제인(閔齊仁: 1494~1549) 등의 시”를 들고 있다.⁴⁾

황인덕의 이러한 연구는 대체로 타당하지만, 부족하거나 부정확한 부분도 많다. 曹偉(1454~1503)의 「扶餘懷古次稼亭韻」⁵⁾에는 “香鈿翠翹墮巖底, 驚魂飄散隨風花.(미인들이 바위 아래로 떨어지니, 놀란 혼들이 바람에 날리는 꽃잎처럼 흩어졌네.)”라는 표현은 나오지만 ‘三千’이란 숫자는 없다. 金訢(1448~1492)의 「落花巖」⁶⁾에는 “三千歌舞委沙塵, 紅殘玉碎隨水逝.(삼천의 가무인이 모래 먼지에 몸 맡기고, 꽃 지고 옥 부서지듯 물을 따라 가버렸네.)”라고 하여, ‘三千歌舞’라는 표현이 한국 한시에서는 처음으로 등장하고, 閔齊仁(1493~1549)의 「白馬江賦」⁷⁾의 “望三千其如雲, 眩後宮之粉紅.(구름 같은 삼천 명을 바라보며, 꽃다운 후궁들에게 현혹되었네.)”라는 구절에서는 ‘三千’과 ‘後宮’을 함께 거론한 표현이 나온다. 그러나 曹偉, 金訢, 閔齊仁의 시에서 ‘三千宮女’라는 네 글자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

선행 연구에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은 경우로, 南孝溫(1454~1492)이 1491년(성종 22) 1월 23일에 지은 「扶餘懷古十首」⁸⁾의 제1수, 제3수, 제10수에서 각각 “三百後宮齊喪生(삼백 후궁이 모두 목숨 잃었구나.)”, “可媿落花巖下魂(낙화암 아래의 혼에게 부끄럽다 하리라.)”, “水府深深女怨多, 豔容化作春江花.(깊고 깊은 용궁에는 여인 원한 많으리니, 아리따운 자태 변하여 봄 강의 꽃 되었구나.)”라고 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三百後宮’은 꼭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南孝溫이 ‘三千’이 아니라

4) 황인덕, 「부여 낙화암 전설의 형성과 전개」, 『한국문학논총』 29, 한국문학회, 2001, 175~178면.

5) 曹偉, 『梅溪集』 권3, 七言長篇.

6) 金訢, 『顏樂堂集』 권1, 詩.

7) 閔齊仁, 『立巖集』 권6, 賦.

8) 南孝溫, 『秋江集』 권3, 詩, 七言絕句. (* 이 작품의 題下 細註에 “與百源乘舟浮白馬江, 過天政臺·釣魚臺·落花巖·浮山而返. 時辛亥正月念三也.”라고 되어 있다. 이하 細註는 모두 { }로 표시함).

‘三百’이라고 한 데에는 실제의 역사적 사실에 가깝게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터이다.⁹⁾

한편 필자가 대략 밝은 바로, 조선조 한시 중 落花巖을 소재로 한 작품 가운데에는 ‘三千宮女’라는 네 글자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朴淳(1523~1589)이 「落花巖」¹⁰⁾에서 “三千歌舞金宮女, 水底魚龍亦識顏.(삼천의 가무하던 궁궐의 여인들을, 물속의 어룡 또한 얼굴을 알아보리.)”라고 한 경우, 寧齋 李建昌(1852~1898)이 「伐吾龍」¹¹⁾에서 “宮女三千如花開, 樂莫樂兮萬歲杯.(궁녀 삼천이 꽃이 핀 듯 아름다우니, 즐겁기론 萬壽杯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었네.)”라고 한 경우에도 ‘三千宮女’라는 네 글자는 등장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나라 문학 작품에서 ‘三千宮女’라는 네 글자 표현은 낙화암과 관련되지 않은 시에서 등장하기 시작한다. 12세기에 활동한 林椿(?~?)의 “三千宮女檻前花(삼천궁녀와 같은 난간 앞의 꽃들)”¹²⁾이라고 한 표현, 李奎報(1168~1241)의 “花媚三千宮女臉(꽃은 고와 삼천궁녀의 뺨 같고)”¹³⁾라고 한 표현 등에서 ‘三千宮女’라는 네 글자 표현이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三千宮女’는, 낙화암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수많은 꽃의 화려한 모습을 三千宮女의 아름다움에 비유한 것이다. 그렇지만 林椿이나 李奎報 소위 ‘三千宮女’라는 네 글자 표현과 낙화암을 소재로 한 시에서의 三千宮女의 개념을 담은 표현들은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닐 터이다.

역대 한국과 중국의 한시에는 ‘三千宮女’, ‘宮女三千’, ‘三千歌舞’, ‘歌舞三千’, ‘三千粉黛’, ‘粉黛三千’, ‘三千粉面’, ‘粉面三千’, ‘三千玉女’, ‘三千女’, ‘三千人’, ‘三千妾’ 등의 표현이 많이 나온다. 특히 한국 한시에는 ‘三千佳妓’, ‘三千後宮’, ‘三百後宮’, ‘三千楚舞’, ‘三千翠娥’, ‘三千舞女’, ‘三千娥媚’, ‘三千侍女’, ‘三千錦繡’, ‘三千美女’, ‘三千妝女’ 등과 같이 중국 한시에서는 흔하게 보이지 않는 표현들도 보인다.¹⁴⁾

9) 이와 관련하여서는 추후 별고를 통해 다시 상론하고자 한다.

10) 朴淳, 『思菴集』 권1, 七言絕句.

11) 李建昌, 『明美堂集』 권2, 詩○直指行卷.

12) 林椿, 『西河集』 권2, 古律詩, 「題竹林寺」.

13)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권7, 古律詩, 「訪閔秀才, 用古人韻」.

14) 이 논문은 ‘三千宮女’, ‘宮女三千’, ‘三千歌舞’, ‘歌舞三千’, ‘三千粉黛’, ‘粉黛三千’, ‘三千粉面’, ‘粉面三千’, ‘三千玉女’, ‘三千女’, ‘三千人’, ‘三千妾’ 등의 표현을 모두 포괄하는 대표 용어로 ‘三千宮女’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물론 각각의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해야 할 때에는 구분하여 쓸 것이다.

이러한 표현들이 사용되는 예는 그야말로 다양하다. 三千宮女 관련 표현들은 한중 한시에서의 중요한 詩語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시어들은 활용되는 맥락이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타나 있지만, 각각 모두 내적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대 문헌과 唐代의 한시를 대상으로 삼아서 三千宮女의 개념과 유래, 문학적 의미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三千宮女 관련 다양한 표현의 내적 연관성과 심층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황인덕의 선행 연구에서도 조선조 시인들의 三千宮女 관련 표현들이 唐代 시인의 한시, 즉 “백낙천(白樂天: 772~846)의 시 長恨歌에 보이는 ‘後宮佳麗三千人 三千寵愛在一身’이나 또 다른 시의 ‘三千宮女胭脂面 幾個春來無無泪痕’ 같은 시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¹⁵⁾고 하였거니와, 낙화암과 관련하여 三千宮女를 다룬 조선조 한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의 한시에 나타난 三千宮女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한시 문학에 나타난 三千宮女 연구 또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시 문학에 나타난 백제의 三千宮女 연구 또한 심화할 수 있을 터이다.

II. 三千宮女의 개념과 유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삼천궁녀(三千宮女)’를 “백제가 멸망할 때 왕족과 함께 부여의 낙화암에서 백마강에 떨어져 죽었다는 궁녀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죽었다는’이라는 표현은 ‘죽었다고 전하는’의 준말로써 세상의 전언을 인용한 것이고, ‘궁녀들’이라는 말 앞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三千宮女는 일종의 傳說에서 유래한 것이고, ‘三千’이란 숫자는 구체적인 것이 아님을 드러낸 셈이다.

그런데 중국의 사전에서는 ‘三千宮女’라는 표제어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필자가 자주 애용하는 『漢語大詞典』의 경우 ‘三千宮女’라는 표제어는 없고, ‘三千’ 및 ‘三千

15) 황인덕, 앞의 논문, 176면.

弟子’, ‘三千世界’, ‘三千九萬’ 등의 다른 표제어가 실려 있을 뿐이다. 이는 ‘三千宮女’라는 표현이 우리 한국의 역사와 문학에서는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중국 문학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개념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역대 중국의 한시 문학에 나타난 三千宮女에 관해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에서는 비록 관심을 쏟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국 문학에서 三千宮女가 어떠한 개념과 유래를 지닌 말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이와 관련한 중국에서의 선행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 번다함을 무릅쓰고서라도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을 필두로 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三千’이란 숫자는 주로 ‘수효가 많은 것’을 가리킨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예컨대 공자 제자의 수효가 대개 ‘三千’이었기에 후대에 공자의 제자를 가리켜서 ‘三千弟子’라고 하는데, 이때의 ‘三千’이란 숫자는 구체적인 수효에서 유래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의 ‘三千’은 ‘三千 내외’의 ‘대개[蓋]’의 수효이다.¹⁶⁾ 제자가 대개 ‘三千’ 명이고, 그중에서 六藝에 통달한 사람이 ‘七十二’ 명이었는데, 그 ‘七十二’ 문인을 成數¹⁷⁾인 ‘七十’으로 표현하는 것과 같이,¹⁸⁾ ‘三千’이란 숫자도 成數에 해당할 터이다. 『禮記』에서의 ‘威儀三千’이라고 할 때의 ‘三千’ 또한 구체적인 숫자를 가리킨다.¹⁹⁾

불교에서 ‘三千世界’, ‘三千佛’이라고 할 때의 ‘三千’ 역시 구체적인 숫자를 나타낸다고 한다.²⁰⁾ 『丁福保佛學大詞典』에서 검색해보면, ‘三千世界’(三千界, 三千大千世界)는 고대 인도인의 우주관을 반영한 구체적인 수효로 설명되어 있다. ‘三千世界’는 10억 개의 ‘小世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²¹⁾ 또한 『三千佛名經』이란 경전에는

16) 張守節 撰, 『史記正義』 권47, 孔子世家 제17. “孔子以詩書禮樂教, 弟子蓋三千焉, 身通六藝者七十有二人. 如顏濁鄒之徒, {濁音卓, 鄒音聚. 顏濁鄒, 非七十二人數也.} 頗受業者甚衆.”

17) 이 논문에서의 ‘成數’는 ‘整數’ 곧 ‘우수리가 없는 숫자’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18) 王勃 撰, 『王子安集』 권13, 碑, 『益州夫子廟碑』. “三千弟子, 攀睿化而升堂, 七十門人, 奉洪規而入室.”

19) 鄭玄 注, 陸德明 音義, 孔穎達 疏, 『禮記注疏』 권53, 中庸. “優優大哉, 禮儀三百, 威儀三千. ……疏[正義曰: …… 其道禮儀三百者, 周禮有三百六十官, 言三百者, 舉其成數耳. 威儀三千者, 卽儀禮行事之威儀也. 儀禮雖十七篇, 其中事有三千.]”

20) 『中國當代佛教網-佛教辭典』 / ‘三千大千世界’, ‘三千佛’조 참조(<http://fojiaocidian.cn/index.html>).

21) 須彌山을 중심으로 한 四大洲 및 九山, 八海로 구성된 세계를 ‘小世界’라 하는데, 하나의 ‘小世界’는 色界의 初禪天부터 大地 밑의 風輪에 이르는 모든 영역,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日月, 須彌山,

‘三千佛’의 명칭이 일일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다.

한편 『莊子』에서의 ‘三千里’ 또는 ‘九萬里’라고 할 때의 ‘三千’과 ‘九萬’은 구체적인 숫자가 아니다. 품은 뜻이나 이상이 높고 원대한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다.²²⁾ 그래서 唐의 黃滔(840~911)는 ‘三千九萬平生事’라는 구절을 통해서 넓고 큰 세계에서 고원한 뜻과 이상을 펼치고 싶은 평생의 소망을 표현하기도 하였다.²³⁾ 여기에서의 ‘三千’과 ‘九萬’은 모두 막연히 많은 추상적인 수효를 나타내려는 것이다. ‘三千’과 ‘九萬’은 구체적인 크고 작음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셈이다.

그런데 유학과 불교에서 말하는 ‘三千弟子’, ‘威儀三千’, ‘三千世界’, ‘三千佛’ 등에서의 ‘三千’ 또한 그 맥락으로 보았을 때, 매우 많은 막연한 수효에 해당하는 것이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수효의 의미를 지닌, 아울러 매우 많다는 의미를 지닌 ‘三千’이란 숫자가 때에 따라서는 추상적인 차원의 막연히 많은 수효를 나타내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을 터이다. 원래는 구체적인 수효를 나타내던 것에서 막연하게 수효가 많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의미가 확대되었을 터이다. 문학 작품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자면, 唐의 張祐나 杜牧 소위 ‘三千客’²⁴⁾ 또는 ‘三千賓客’²⁵⁾은 門客이 매우 많은 것을 의미하고, 北宋 蘇軾 소위 ‘三千牘’²⁶⁾은 상소문의 길이가 매우 긴 것을

四天王, 三十三天, 夜摩天, 兜率天, 樂變化天, 他化自在天, 梵世天 등을 모두 포괄한다. ‘小世界’ 천 개가 모여서 ‘小千世界’를 이루고, ‘小千世界’ 천 개가 모여서 ‘中千世界’를 이루고, ‘中千世界’ 천 개가 모여서 ‘大千世界’를 이루는데, 이 ‘大千世界’는 小, 中, 大 세 가지 千世界가 모여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三千大千世界’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三千世界’는 10억 개의 ‘小世界’로 이루어져 있는 셈이다.

- 22) 林希逸 撰, 『莊子口義』 권1, 內篇 逍遙遊 則1, “鵬之徙於南冥也, 水擊三千里, 搏扶搖而上者九萬里. …… 三千·九萬, 卽形容其高遠也.”
- 23) 黃滔 撰, 『黃御史集』 권3, 七言律詩, 「寓題」. “每憶家山卽涕零, 定須歸老舊雲局, 銀河水到人間濁, 丹桂枝垂月裏馨, 霜雪不飛無翠竹, 鯨鯢猶在有青萍, 三千九萬平生事, 却恨南華說北溟.”
- 24) 洪邁 編, 『萬首唐人絕句』 권70, 七言, 「感春申君」(張祐). “薄俗何心議感恩, 謠容卑迹賴君門, 春深還道三千客, 寂寞無人殺李園.”
- 25) 洪邁 編, 『萬首唐人絕句』 권25, 七言, 「春申君」(杜牧). “烈士思酬國士恩, 春申誰與快冤魂, 三千賓客總珠履, 欲使何人殺李園.”
- 26) 蘇軾 撰, 『東坡全集』 권16, 詩, 「次韻子由送千之姪」. “江上松楠深復深, 滿山風雨作龍吟, 年來老幹都生菌, 下有孫枝欲出林, 白髮未成歸隱計, 青衫儻有濟時心, 閉門試草三千牘, 仄席求人少似今.” (* 張守節 撰, 『史記正義』 권126, 滑稽列傳 則66. “武帝時, 齊人有東方生名朔, 以好古傳書愛經術,

의미하고, 建安七子の 일인으로 일컬어지는 陳琳 소위 ‘三千里’²⁷⁾는 長城의 길이가 매우 긴 것을 의미하고, 唐 李白 소위 ‘三千丈’²⁸⁾ 또한 백발이 매우 많이 자란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三千’이란 숫자는 많은 경우에, 더는 구체적인 수효에 상관없이, 막연히 많은 수효를 나타내는 것으로 쓰이게 되었다. 그리고 ‘三千’이란 숫자가 한시 문학에서 막연히 많은 수효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 陳琳의 예에서 보듯이 위진 남북조 시대 초기부터 이미 시작되었음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三千宮女에서의 ‘三千’ 역시 마찬가지이다. 원래는 구체적인 수효를 나타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막연히 많은 수효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前漢 貢禹의 전언에 의하면 상고 시대에는 宮室에 정해진 제도가 있고, 宮女도 9명을 넘지 않았다고 한다.²⁹⁾ 夏·殷代까지만 해도 宮女 제도가 그야말로 검소하였다. 그런데 晉代 皇甫謐의 『帝王世紀』에 따르면, 殷나라 紂王이 사치스러운 傾宮을 건설하고 화려한 방을 지어서 美女를 많이 뽑아서 傾宮의 방을 채웠고,³⁰⁾ 비단옷을 입은 婦人이 3백여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³¹⁾ 殷代 말에 즈음하여 宮女의 수효가 3백여 명으로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어 『後漢書』를 보면, 周代에는 婦人이 3명, 嬪이 9명, 世婦가 27명, 女御가 81명으로, 宮女의 수효가 총 120명으로 정해졌다가, 前漢 제7대 武帝와 제11대 元帝 이후로는 대대로 점점 늘어나, ‘掖庭三千’ 즉 궁궐 안 宮女의 수효가 3천 명에 이르게

多所博觀外家之語。朔初入長安，至公車上書，凡用三千奏牘。”)

27) 郭茂倩 輯, 『樂府詩集』 권38, 相和歌辭, 瑟調曲, 「飲馬長城窟行」(陳琳). “飲馬長城窟, 水寒傷馬骨, 往謂長城吏, 慎莫稽留太原卒, 官作自有程, 舉築諧汝聲, 男兒寧當格鬪死, 何能怫鬱築長城, 長城何連連, 連連三千里, 邊城多健少, 內舍多寡婦, 作書與內舍, 便嫁莫留住, 善事新姑嫜, 時時念我故夫子, 報書往邊地, 君今出語一何鄙, 身在禍難中, 何爲稽留他家子, 生男慎莫舉, 生女哺用脯, 君獨不見長城下, 死人骸骨相撐拄, 結髮行事君, 慊慊心意關, 明知邊地苦, 賤妾何能久自全.”

28) 李白 撰, 『李太白文集』 권6, 歌詩, 歌吟 하, 「秋浦歌十七首」 중 제15수. “白髮三千丈, 緣愁似箇長, 不知明鏡裏, 何處得秋霜.”

29) 班固 撰, 顏師古 注, 『前漢書』 권72, 王貢兩龔鮑傳 제42. “貢禹, 字少翁, 琅邪人也. …… 元帝初卽位, 徵禹爲諫大夫, 數虛己問以政事, 是時年歲不登, 郡國多困, 禹奏言: ‘古者宮室有制, 宮女不過九人, 秣馬不過八匹, 牆塗而不瑠木摩而不刻. …….’”

30) 李蹕 撰, 『尚史』 권4, 本紀 3, 商本紀, 帝辛(紂). “造傾宮, 作瓊室, 飾以美玉. 七年乃成, 其大十里, 其高千丈, 多發美女, 以充傾宮之室. (帝王世紀)”

31) 范曄 撰, 李賢 注, 『後漢書』 권7, 桓帝紀 제7, “傾宮雖積, 皇身靡續. (帝王紀曰: ‘紂多發美女, 以充傾宮之室, 婦人衣綾紈者, 三百餘人.’)”

되었다고 하였다.³²⁾ 漢의 班固가 지었다고 전하는 『漢武故事』에 따르면, 武帝는 明光宮을 짓고 거기에 ‘燕·趙 지역의 미녀 三千人[燕趙美女三千人]’을 뽑아서 채웠다고 하며, 建章宮, 未央宮, 長安宮 등의 모든 전각에 있는 宮女의 수효가 무려 1만8천 명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武帝는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있어도 하루라도 婦人이 없으면 살 수 없었다고 한다.³³⁾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後漢書』에 기록된 ‘掖庭三千’이라는 표현, 『漢武故事』에 기록된 ‘燕趙美女三千人’이라는 표현은 ‘三千宮女’의 전고가 형성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특히 武帝는 后妃인 陳皇后 阿嬌와 衛皇后 子夫 관련 고사로도 유명하다. 武帝가 어린 시절 太子로 있을 때 長公主가 자기 딸 阿嬌를 武帝의 妃로 삼고자 하여, 阿嬌를 가리키며 武帝에게 “阿嬌를 얻는다면 좋겠는가?”라고 물으니, 武帝가 “만약 阿嬌를 얻는다면 ‘金屋’에 감추어 두겠다.”라고 대답하여, 결국 阿嬌가 황후가 되었다.³⁴⁾ 그런데 얼마 지난 뒤에 한 武帝가 平陽公主의 집에 行幸하여 술을 마시다가 武帝가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을 때 衛子夫가 옆에서 시중을 들다가 총애를 받게 되면서,³⁵⁾ 투기한다는 이유로 陳皇后를 소박하여 長門宮으로 물러가 살게 하였다.³⁶⁾ 武帝와 陳皇后와 衛皇后 사이에 얽힌 이와 같은 복잡한 사연을 전고로 삼아서

32) 范曄 撰, 李賢 注, 『後漢書』 권10상, 后紀 제10상. “夏殷以上, 后妃之制, 其文畧矣. 周禮王者立后, {……} 三夫人, 九嬪, 二十七世婦, 八十一女御, 以備內職焉. …… 自武·元之後, 世增淫費, 至乃掖庭三千.”

33) 潘自牧 撰, 『記纂淵海』 권45, 性行部, 耿好. “上又起明光宮, 發燕·趙美女三千人, 充之. 建章·未央·長樂三宮, 輦道相續, 使三婦人知書者, 爲僕射, 大者領四百人, 小者領一二百人, 與上同輦者十六人, 皆自然美麗, 不施粉黛, 上能三日不食, 不能一日無婦人.(漢武帝故事); 陸楫 編, 『古今說海』 권117, 說纂 1(逸事 1), 漢武故事(班固). “上起明光宮, 發燕·趙美女二千人, 充之. 率皆十五以上, 二十以下, 年滿三十者, 出嫁之. 掖庭總籍, 凡諸宮美女, 萬有八千. 建章·未央·長安三宮, 皆輦道相屬. 率使宦者, 婦人分屬, 或以爲僕射, 大者領四五百, 小者領一二百人.”

34) 歐陽詢 撰, 『藝文類聚』 권16, 儲宮部, 太子妃. “漢武故事曰: ‘初武帝爲太子時, 長公主欲以女配帝, 時帝尙小, 長公主指女問帝曰: ‘得阿嬌好不?’ 帝曰: ‘若得阿嬌, 以金屋貯之.’ 主大喜, 乃以配帝. 是日 陳皇后, 阿嬌, 后字也.”

35) 班固 撰, 顏師古 注, 『前漢書』 권97상, 外戚列傳 제67상. “孝武衛皇后, 字子夫, 生微也. 其家號曰衛氏, 出平陽侯邑. 子夫爲平陽主謳者. 武帝卽位, 數年無子, 平陽主求良家女十餘人, 飾置家. 帝祓霸上還, 過平陽主. 主見所侍美人, 帝不說. 既飲, 謳者進, 帝獨說子夫. 帝起更衣, 子夫侍尙衣軒中, 得幸. 還坐驪甚, 賜平陽主金千斤, 主因奏子夫送入宮.”

36) 班固 撰, 顏師古 注, 『前漢書』 권97상, 外戚列傳 제67상. “孝武陳皇后, 長公主嫖女也. …… 初, 武帝得立爲太子, 長主有力, 取主女爲妃. 及帝卽位立爲皇后, 擅寵驕貴, 十餘年而無子, 聞衛子夫得

후대에 많은 문학 작품이 산출되었으며, 이 작품들에 ‘三千宮女’ 관련 시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元帝는 흉노와의 화친을 위해 呼韓邪 單于에게 시집을 간 王昭君 고사와 더불어 너무나도 유명하다. 王昭君은 자는 嬙으로, 일명 明妃이다. 元帝는 평소에 후궁이 너무 많아서 다 확인할 수는 없어서 화공에게 초상화를 모두 그리게 해서 그것을 보고 총애하였는데, 다른 후궁들은 화공에게 많은 뇌물을 바치고 아름다운 초상화를 그리게 하였지만, 王昭君은 뇌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추하게 그려져서 총애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元帝가 자신의 후궁 가운데 못생긴 여자를 골라 呼韓邪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할 때, 화공이 그려놓은 초상화를 보고서 王昭君을 골라서 보내려고 하였는데, 王昭君이 흉노로 떠나려고 할 때 그녀를 처음으로 본 元帝는 그녀가 너무나 아름다우므로 보내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³⁷⁾ ‘後宮第一’의 자질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후궁 사이에서 군왕의 총애를 받지 못한 王昭君의 이와 같은 불행한 사연은 후대의 문학 작품에서 전고로 수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으며, 이 작품들에 또한 ‘三千宮女’ 관련 시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後漢 제11대 桓帝에 이르러서는 3명의 皇后 외에 宮女의 수효가 5·6천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³⁸⁾ 이후 위진 남북조 시대를 거쳐 隋代 말에는 宮女의 수효가 수만 명으로 확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舊唐書』를 보면, 唐 太宗이 626년 (武德 9) 8월에 즉위하며 宮女 3천 명을 출궁시켰다는 기록이 나온다.³⁹⁾ 구중궁궐

幸, 幾死者數焉, 上愈怒. 后又挾婦人媚道, 頗覺. 元光五年, 上遂窮治之. 女子楚服等坐爲皇后巫蠱祠祭祝詛, 大逆無道, 相連及誅者, 三百餘人. 楚服梟首於市. 使有司賜皇后策曰: ‘皇后失序, 惑於巫祝, 不可以承天命. 其上璽綬, 罷退居長門宮.’ 明年, 堂邑侯午薨, 主男須嗣侯. 主寡居, 私近董偃. 十餘年, 主薨. 須坐淫亂, 兄弟爭財, 當死, 自殺, 國除. 後數年, 廢后乃薨, 葬霸陵郎官亭東.”

37) 劉歆 撰, 葛洪 輯, 『西京雜記』 권2. “元帝後宮既多, 不得常見, 乃使畫工圖形, 按圖召幸之. 諸宮人皆賂畫工, 多者十萬, 少者亦不減五萬. 獨王嬙不肯, 遂不得見. 後匈奴入朝, 求美人爲閼氏. 於是上案圖, 以昭君行. 及去, 召見, 貌爲後宮第一, 善應對, 舉止閑雅. 帝悔之, 而名籍已定. 帝重信於外國, 故不復更人. 乃窮案其事, 畫工皆棄市, 籍其家, 資皆巨萬.”; 范曄 撰, 李賢 注, 『後漢書』 권119, 南匈奴傳 제79, 南匈奴. “昭君字嬙, 南郡人也. (前書曰南郡秭歸人) 初元帝時, 以良家子選入掖庭. 時呼韓邪來朝, 帝勅以宮女五人賜之. 昭君入宮數歲, 不得見御, 積悲怨, 乃請掖庭令求行. 呼韓邪臨辭大會, 帝召五女以示之. 昭君豐容靚飾, 光明漢宮, 顧景裴回, 竦動左右. 帝見大驚, 意欲留之, 而難於失信, 遂與匈奴.”

38) 范曄 撰, 李賢 注, 『後漢書』 권7, 桓帝紀 제7, “傾宮雖積, 皇身靡續. (…… 據桓帝納三皇后, 又博採宮女五六千人, 並無子也.)”

깊숙한 곳에 갇혀 살며 오래도록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宮女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들이 출궁하여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⁴⁰⁾ 즉 『舊唐書』에는 ‘掖庭宮女三千餘人’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역시도 『後漢書』의 ‘掖庭三千’이나 『漢武故事』의 ‘燕趙美女三千人’이라는 표현과 더불어 ‘三千宮女’의 개념이 형성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唐太宗이 이룩한 貞觀之治의 선정과 연계되면서 ‘掖庭宮女三千餘人’ 전고는 추후 중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太宗은 2년 후인 628년(貞觀 2)에 宮女를 추가로 더 출궁시켜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三千’ 명의 宮女를 대대적으로 내보낸 이후에도 ‘數萬’ 명의 불필요한 宮女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를 다시금 줄인 것이다. 당시太宗은 이렇게 宮女를 출궁시키는 이유가 재정 문제나 인구수 확대 정책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이 그들의 여성으로서의 본성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배려하였던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이는 隋代 말의 병폐를 바로잡는다는 의미도 있었을 터이다.⁴¹⁾ 이어 705년 則天武后의 武周가 무너지고 中宗이 唐을 회복하여 복위하며, 宮女 ‘三千’ 명을 출궁시켰다.⁴²⁾ 이 또한 망국의 병폐를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있을 터이다.

太宗이 즉위한 이후부터 시작되는 宮女の 출궁 조치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시행되었다. 779년(大曆 14) 5월에 德宗이 즉위하며 宮女 수백 명을 출궁시키고, 805년(貞元 21) 3월에 順宗이 즉위하며 宮女 300명을, 이어 宮女 및 敎坊 妓女 600명을 출궁시키고, 813년(元和 8) 6월에 憲宗은 宮女 200명을 출궁시키고, 이어 815년(元和 10) 12월에 宮女 70명을 출궁시킨다. 憲宗은 安史의 亂(755~763) 이후 지방의 절도사 군벌을 완전하게 제압해 일시적으로 중흥기를 맞은, 이른바 元和中興을 이끄는 과정에서 이처럼 宮女를 출궁시켰다. 이어 862년(寶曆 2) 12월에 文宗이 즉위하며 宮女 ‘三千’ 명을 출궁시키고,⁴³⁾ 이어 838년(開成 3) 2월에 가뭄 때문에 宮女 500여 명을

39) 劉昫 撰, 『舊唐書』 권2, 本紀 제2, 太宗 상. “放掖庭宮女三千餘人.”

40) 王溥 撰, 『唐會要』 권3, 「出宮人」. “武德九年八月十八日, 詔: ‘…… 朕顧省宮掖, 其數實多, 憫茲深閉, 久離親族, 一時減去, 各從娶聘.’ 自是中宮前後所出, 計三千餘人.”

41) 王溥 撰, 『唐會要』 권3, 「出宮人」. “貞觀二年春三月, 中書舍人李百藥上封事曰: ‘…… 往年雖出宮人, 未爲盡善, 竊聞大安宮及掖庭內, 無用宮人, 動有數萬, 衣食之費, 固自倍多 ……」’ 至七月三日, 上謂侍臣曰: ‘婦人幽閉深宮, 情實可愍. 隋氏末年, 求采無已, 此皆竭人力, 朕所不取, 且洒掃之餘, 更何所用? 今將出之, 任求伉儷, 非獨以省費息人, 亦各得遂其性.’ 於是, 命尚書右丞戴胄, 給事中杜正倫等, 于掖庭西門簡出之.”

42) 劉昫 撰, 『舊唐書』 권7, 本紀 제7, 中宗. “皇親先被配沒者子孫, 令復屬籍, 仍量叙官爵, 出宮女三千.”

출궁시킨다.

이러한 唐代에 행해진 宮女의 출궁 조치는 모두 善政의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다.⁴⁴⁾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출궁시킨 宮女의 수효가 가장 많았던 경우가 태종, 중종, 문종에 의해 이루어진 ‘三千’ 명이라는 것이다. ‘三千’이란 숫자가 많은 宮女를 의미하는 수효가 된 데에는 이러한 점도 영향을 미쳤을 터이다. 그래서인지 宮女의 출궁 조치는 宋代에도 간혹 이어지는데, 1162년(紹興 32년) 南宋의 孝宗이 즉위하며 宮女 ‘三千’ 명을 출궁시킨다.⁴⁵⁾ 孝宗은 南宋 최고의 성군으로 꼽히는바, 이 또한 선정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즉 唐 太宗 이후 宮女의 수효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사치스러움과 향락의 표상이요, 많은 宮女를 출궁시켜서 그 수효를 줄이는 것은 선정의 하나라는 관념이 형성되었을 터이다. 그리고 대다수 宮女는 궁궐에 갇혀서 오래도록 가족과도 만나지 못하는 불쌍한 존재로 인식이 되었을 터이다.

그런데 왜 하필 ‘三千’이라는 숫자가 붙는 ‘三千宮女’인가? 이 물음을 다시 한번 던진다면, 하나의 답변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三千’이란 숫자가 위진 남북조 시대 초기부터 이미 막연히 많은 수효를 나타내는 의미로 한시 문학에서 시어로 쓰이기 시작하였기에, 많은 수의 宮女를 ‘三千’이라는 숫자와 연결하여 부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답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後漢書』에서의 ‘掖庭三千’이나 『漢武故事』에서의 ‘燕趙美女三千人’ 관련 내용, 『舊唐書』에서의 ‘掖庭宮女三千餘人’이라는 내용도 많은 수효의 宮女를 ‘三千’이라는 숫자와 연결하여 부르는 것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왜 반드시 ‘三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또다시 묻는다면, 中唐 시인 楊巨源, 白居易, 元稹, 李賀, 徐凝, 陳羽, 中唐에서 晚唐에 걸쳐 활동한 시인 殷堯藩, 晚唐

43) 王欽若 等 撰, 『冊府元龜』 권42, 帝王部, 仁慈. “文宗, 以寶歷三年卽位, 十二月詔其在內宮女三千許嫁.”

44) 王溥 撰, 『唐會要』 권3, 「出宮人」. “大歷十四年五月, 出宮人數百人. 貞元二十一年三月, 出後宮人三百人. 其月, 又出後宮及教坊女妓六百人, 聽其親戚迎于九仙門, 百姓莫不叫呼大喜. 元和八年六月, 出宮人二百, 任其嫁配. 十年十二月, 出宮人七十人. …… 寶歷二年十二月, 勅在內宮人, 宜放三千人, 願嫁及歸近親, 並從所便, 不須尋問. 開成三年二月, 文宗, 以早出宮人劉好奴等五百餘人, 送兩街寺觀, 任歸親戚. 翌日, 因紫宸對, 宰相李珣曰: ‘陛下放宮女數多, 德邁千古. …….’”

45) 托克托 等 修, 『宋史』 권28, 本紀 제28, 高宗 5. “壬午, 出宮女三千人.”

시인 許渾, 杜牧, 李商隱, 牛嶠, 李洞 등의 시를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답할 수 있다. 결국 ‘三千宮女’라는 시어는 中唐의 元和 시인들의 한시에서부터 전형화가 이루어져서 후대에도 계속해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Ⅲ. 三千宮女의 문학적 의미

주지하다시피, 중국 역사상 唐 300년은 시의 황금기로 唐詩는 보편적으로 初唐, 盛唐, 中唐, 晚唐 이상 4시기로 구분해서 논한다. 이 가운데 中唐은 代宗(재위 762~779) 寶應年間(762)부터 德宗(재위 780~805), 順宗(재위 805), 憲宗(805~820), 穆宗(재위 820~823)을 거쳐 文宗(827~840) 大和 9년(835년)으로 이어지는 시기를 말하는데, ‘三千宮女’를 시어로 하는 작품들은 주로 憲宗의 元和年間(806~820)에 활동한 일군의 시인들에 의해 창작되었다.

中唐의 元和年間에 이르면 三千宮女와 관련해서 李賀, 元稹, 白居易 등의 작품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산출된다. 三千宮女와 관련해서 中唐 시인 중에서는 李賀, 元稹, 白居易가 중요한 시인이며, 널리 알려진 시인들 외에도 楊巨源, 陳羽, 徐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어 中唐과 晚唐⁴⁶⁾에 걸쳐 활동한 시인으로 殷堯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晚唐 시인으로는 許渾, 杜牧, 李商隱, 牛嶠, 李洞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中唐의 元和 시인과 晚唐 시인의 대표 주자들이 대거 三千宮女를 시어로 수용한 것이다. 元和年間으로부터 晚唐에 이르기까지 산출된 작품 중에는 三千宮女가 ‘화려한 궁궐에 대한 代喩 또는 아름다운 자연의 擬人化 대상’, ‘충애를 받지 못하여 소외된 수많은 궁녀에 대한 定型化된 명칭’, ‘宮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宮內 신하들에 대한 寓意의 대상’, ‘사치와 향락에 빠져 망국을 초래한 군왕에 대한 代喩의 대상’으로 쓰인 경우가 많다.

46) 晚唐은 文宗의 開成 원년(836)부터 唐 말기에 이르는 약 70년간을 말한다.

1. 화려한 궁궐에 대한 代喩 또는 아름다운 자연의 擬人化 대상

우선 李賀의 「上雲樂」⁴⁷⁾을 살펴보자.⁴⁸⁾

드날리는 꽃향기 하늘에 가득한 날
 화룡이 파리 틀고 상서로운 구름에 올라앉았습니다.
 삼천궁녀가 화려한 전각에 나열해 있고
 오십 현 슬 소리는 바다 저 멀리 퍼집니다.
 은하수 반짝반짝 은모래 길
 羸女의 베를 속 연기 같은 흰 비단,
 한 줄기 연기 같은 흰 비단을, 옷 실로 바느질하여
 8월 5일⁴⁹⁾ 임금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
 飛香走紅滿天春, 花龍盤盤上紫雲.
 三千宮女列金屋, 五十絃瑟海上聞.
 天江碎碎銀沙路, 羸女機中烟素素.
 斷煙素, 縫衣縷, 八月五日君前舞.

47) 李賀 撰, 『昌谷集』 권4. (* 郭茂倩 輯, 『樂府詩集』 권51, 清商曲辭, 「上雲樂」(李賀)에는 『昌谷集』의 「天江」이 「大江」으로, 「烟素素」가 「斷煙素」로, 「縫衣縷」가 「縫舞衣」로 되어 있다. 이 『樂府詩集』에는 「三千宮女列金屋」 아래에 「一作綵女列金屋」이라는 주가 달려 있다. 康熙帝 勅命, 『御定全唐詩』 권21, 相和歌辭, 「上雲樂」(李賀)에는 「天江」이 「大江」(集作天河)로, 「烟素素」가 「斷煙素」로, 「縫衣縷」가 「縫舞衣」(集作衣縷)로 되어 있다. 『御定全唐詩』 권393, 李賀, 「上雲樂」에는 「三千宮女」가 「三千宮」(一作綵女)로, 「天江」이 「天江」(一作河)로, 「烟素素」가 「斷煙素」로, 「縫衣縷」가 「縫衣縷」(一作舞衣)로 되어 있다. 吳正子 註, 劉辰翁 評, 『箋註評點李長吉歌詩』 권4, 「上雲樂」에는 『昌谷集』과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마지막 구절의 「八月五日」을 제외하고는 모두 『昌谷集』과 『箋註評點李長吉歌詩』의 표기를 따랐다. 「八月五日」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기로 한다.

48)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한시 중 일부는 문학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널리 알려지지 못한, 혹은 제대로 설명되어 있지 못한 것이기에, 문맥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상세하게 설명하며 제시하였다.

49) 사실 『昌谷集』을 비롯한 위에 언급한 모든 문헌의 원문에는 「八月五日」이 「八月一日」로 되어 있다. 吳正子 註, 劉辰翁 評, 『箋註評點李長吉歌詩』 권4, 「上雲樂」의 작품 주석에서는 “韋應物「漢武歌」云: 「世間綵翠亦作囊, 八月一日仙人方。」이라 하였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주석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胡震亨 撰, 『唐音癸籤』 권23, 詠箋 8의 “「上雲樂」八月一日君前舞, 舊注, 引『齊諧記』, 「八月一日」, 赤松子採栢藥事爲解, 此非也. 一日當作五日. 「上雲樂」, 乃俳樂獻壽之辭, 以千秋名節, 始玄宗, 玄宗, 以八月五日生. 是日, 讌樂爲盛, 故賀擬辭用之. 他帝即無有此月一日生者, 故知字誤也.”라고 한 기록을 근거로 삼아서, 「八月一日」을 「八月五日」로 수정하였다.

李賀(790~816)는 元和年間에 활동한 시인으로, 韓愈, 皇甫湜 등의 인정을 받았으나 안타깝게 요절한 시인이다. 이 작품에 대해 南宋代 吳正子와 劉辰翁은 ‘신령을 즐겁게 해주는 말[樂神之辭]’이라 하였고,⁵⁰⁾ 明代 胡震亨은 ‘광대들이 헌수하는 말[俳樂獻壽之辭]’이라고 하였다.⁵¹⁾ 胡震亨의 견해를 빌리자면, 이 작품은 李賀가, 玄宗의 생일인 8월 5일 千秋節을 맞이하여 玄宗에게 獻壽하는 樂舞 광대들의 말의 형식을 본떠서 玄宗을 天上의 신령에 견주어서 읊은 것이다.

『舊唐書』에 따르면, 728년(현종 17) 8월 5일에 玄宗이 자신의 생일을 맞아 花萼樓 아래에서 백관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는데, 백관들이 표문을 올려 玄宗이 태어난 매년 8월 5일을 千秋節로 정하여 王公 이하는 거울과 承露囊을 바치고 천하의 여러 주에서는 모두 연회를 즐기면서 3일 동안 휴가를 보내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칙령을 만들자고 청하니, 玄宗이 따랐다고 하였다.⁵²⁾ 花萼樓는 玄宗이 興慶宮 서남쪽에 지은 누각으로 본래 이름은 花萼相輝之樓이다.

제1·2구에서는 千秋節을 기념하던 연회의 공간이 花萼樓이기 때문에 주인공 玄宗이 위치한 공간적 배경을 꽃향기가 가득한 천상의 공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동시에 주인공 玄宗을 천상의 구름 위에 따리를 틀고 앉아 있는 ‘花龍’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어 제3·4구에서는 주인공을 에워싸고 있는 배경으로서의 천상 누각의 모습을 ‘三千宮女’와 ‘五十絃瑟’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三千宮女’가 玄宗을 호위하며 ‘金屋’에 나열한 화려하고 장엄한 장면 속에서 太昊伏羲氏 시대에 素女가 연주하였다는 악기인 50현 瑟⁵³⁾ 소리가 바다 위 저 멀리 퍼져나가고 있다. 이는 玄宗의 德化가 온 세상으로 퍼지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50) 吳正子 註, 劉辰翁 評, 『箋註評點李長吉歌詩』 권4, 「上雲樂」. {……} “(시 생략).” {又古. 是樂神之辭.}”

51) 胡震亨 撰, 『唐音癸籤』 권23, 詁箋 8. “「上雲樂」, 乃俳樂獻壽之辭, 以千秋名節, 始玄宗, 玄宗, 以八月五日生. 是日, 讌樂爲盛, 故賀擬辭用之.”

52) 劉昫 撰, 『舊唐書』 제8, 本紀 제8, 玄宗 상. “十七年 …… 八月癸亥, 上以降誕日, 讌百寮于花萼樓下. 百寮表請以每年八月五日爲千秋節, 王公已下獻鏡及承露囊, 天下諸州咸令讌樂, 休暇三日, 仍編爲令, 從之.”

53) 裴駰 撰, 『史記集解』 권28, 封禪書 제6. “或曰: ‘太帝使素女, 鼓五十絃瑟, 悲帝禁不止, 故破其瑟, 爲二十五絃.’”; 劉昫 撰, 『舊唐書』 권29, 志 제9, 音樂 2. “瑟, 昔者, 大帝使素女, 鼓五十絃瑟, 悲不能自止, 破之爲二十五絃. 大帝, 太昊也.”

이어 제5·6구에서는 당나라 長安의 여자들이 千秋節에 공연을 할 樂舞 광대들이 착용할 舞衣의 옷감으로 쓰일 비단을 짜는 모습을 천상의 선녀가 비단을 짜는 모습에 견주어서 묘사하고, 제7·8구에서는 천상의 선녀인 ‘羸女’가 짠 비단으로 만든 舞衣를 착용하고서 千秋節을 맞아서 玄宗 앞에서 공연하는 樂舞 광대들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天江’은 天河 즉 은하수이므로 ‘은모래 길[銀沙路]’은 곧 은하수 주위의 무수한 별들이 펼쳐져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는 당나라 서쪽 長安을 상징한 것이다. 그리고 ‘羸女’는 베틀로 비단을 짜는 長安 여자들을 비유한 것이다.

원래 ‘羸女’는 춘추 시대 秦穆公의 딸 弄玉을 가리킨다.⁵⁴⁾ 弄玉은 통소를 잘 부는 簫史에게 시집을 가서 매일 簫史에게 통소를 배워 봉황의 소리를 잘 내니 진짜로 봉황이 날아와서 그 집에 머무르자, 穆公이 鳳臺를 지어주어서 簫史와 弄玉 부부가 수년간 그 위에서 함께 살다가, 어느 날 부부가 鳳凰을 타고 승천하였다고 한다.⁵⁵⁾ 장안의 여자들을 원래는 지상의 존재였다가 승천하여 천상의 선녀가 된 羸女에 견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 ‘羸女の 베틀 속 연기 같은 흰 비단’이라고 한 제6구는, 吳正子와 劉辰翁의 언급과 같이,⁵⁶⁾ 漢代 班婕妤의 「怨歌行」⁵⁷⁾을 보고 南朝 시대 江淹이 지은 「班婕妤詠扇」에서 “紈扇如團月，出自機中素，畫作秦王女，乘鸞向煙霧.(흰 비단부채 둥근 달 같으니, 베틀 가운데의 흰 비단으로 만들었다오. 秦王의 딸을 그렸으니, 난새 타고 구름 속으로 향한다오.)”⁵⁸⁾라고 한 구절을 전고로 삼아 지은 것이다. 江淹 시에서는 ‘羸女’가 비단부채 속에 그려진 여자로 등장하고 있지만, 李賀 시에서는 비단을 짜는 장안의 여자를 천상의 존재로 미화하려는 목적으로 등장시킨 것이다.

54) 秦 왕족의 성이 ‘羸’이기 때문에 秦穆公의 딸 弄玉을 ‘羸女’라고 한 것이다.

55) 劉向 撰, 『列仙傳』 권상, 「蕭史」. “蕭史者, 秦穆公時人也, 善吹簫, 能致孔雀白鶴於庭. 穆公有女子弄玉, 好之, 公遂以女妻焉. 日教弄玉, 作鳳鳴, 居數年, 吹似鳳聲, 鳳凰來止其屋. 公爲作鳳臺, 夫婦止其上, 不下數年. 一旦, 皆隨鳳凰飛去, 故秦人爲作鳳女祠於雍宮中, 時有簫聲而已.”

56) 吳正子 註, 劉辰翁 評, 『箋註評點李長吉歌詩』 권4, 「上雲樂」. 「……」 “(시 생략). 「…… 羸女, 秦女也. 江淹詩: ‘紈扇如團月, 出自機中素, 畫作秦王女, 乘鸞向煙霧.’”

57) 蕭統 編, 李善 註, 『文選』 권27, 樂府 上, 「怨歌行」(班婕妤). “新裂齊紈素, 皎潔如霜雪, 裁爲合歡扇, 團團似明月, 出入君懷袖, 動搖微風發, 常恐秋節至, 涼風奪炎熱, 棄捐篋笥中, 恩情中道絕.”

58) 江淹 撰, 『江文通集』 권4, 詩, 雜體三十首, 「班婕妤詠扇」. “紈扇如團月, 出自機中素, 畫作秦王女, 乘鸞向煙霧, 彩色世所重, 雖新不代(一作似故, 竊愁涼風至, 吹我王階樹, 君子恩未畢, 零落在中路.”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前漢의 武帝와 元帝 이후로는 대대로 宮女가 늘어나 3천 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後漢書』의 기록에서 ‘掖庭三千’이라 언급한 표현이 나오는데, 李賀는 玄宗의 千秋節 연회를 화려하게 수놓는 수많은 宮女의 모습을 漢代 궁궐의 ‘金屋’을 가득 채운 ‘三千宮女’의 화려한 모습으로 비유하여 묘사하였다. ‘金屋’이란 시어 역시도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武帝와 陳皇后 阿嬌 사이의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後漢書』 소위 ‘掖庭三千’에서의 ‘三千’은 宮女의 구체적인 수효를 말하는데, 李賀는 이를 전고로 삼아서 唐代 궁궐의 수많은 宮女를 ‘三千宮女’라는 막연히 많은 宮女의 수효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는 李賀의 「上雲樂」에서 ‘三千宮女’라는 4글자 표현이 나온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上雲樂」에서의 ‘三千宮女’는 화려한 궁궐에 대한 대유의 대상으로 쓰였으며, 이러한 개념은 후대 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제 杜牧의 「郡齋獨酌」⁵⁹⁾을 살펴보자. 이 시는 총 108구로 되어 있는데, 제21구~제34구 부분만 인용해보기로 한다.

나는 이 시중을 사랑하니
 높고 큰 칠 척의 군셈이 있네.
 백우전 여덟 겹 갑옷 뚫는 화살로
 (적의) 푸른 박달나무 창을 깔고 앉았네.
 바람 앞에서 (적의) 횡진을 공략하여
 붉은 수염 드날리며 (횡진을) 좌우로 갈랐네.
 회서의 일만 범 같은 군사도
 부릅뜬 눈을 감히 당하지 못하였네.
 공로를 이루어, 인덕전에서 연회를 내리니
 넓은 구장에서 원숭이 뛰고 송골매 스쳐 날았네.
 삼천궁녀가 머리 기울이고 바라보다가
 서로 밀치면서 雙玉 귀고리를 밟아 부셨네.

59) 康熙帝 勅命, 『御定全唐詩』 권520, 杜牧. (* 厥名 撰, 『錦繡萬花谷後集』 권14, 將帥에도 “我愛李侍中, 標標七尺長, 白羽入札弓, 陛壓綠檀槍, 風前畧橫陣, 紫髯分兩傍, 淮西萬虎士, 怒目不敢當.(杜牧)”과 같이, 「郡齋獨酌」의 일부가 수록되어 있다).

깃대 드높고 깃발은 밝은 채로
의기 품고 말을 몰아 고향으로 돌아갔지.
我愛李侍中，標標七尺強。
白羽八札弓，旌壓綠檀槍。
風前畧橫陣，紫髯分兩旁。
淮西萬虎士，怒目不敢當。
功成賜宴麟德殿，獲超鵬掠廣毬場。
三千宮女側頭看，相排踏碎雙明璫。
旌竿標標旗燿燿，意氣橫鞭歸故鄉。

杜牧(803~853)은 산문과 시에 뛰어났으며 특히 칠언절구에 능한 晚唐 시인이다. 제목 아래에 ‘黃州作’이라는 세주가 달려 있는데, 杜牧은 842년(武宗 2)에 黃州刺史가 되었으니, 이 시를 지을 당시 그의 나이는 40세였다.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은 자신의 이상과 포부를 토로한 것이다. 인용한 부분 제1구의 ‘李侍中’은 李光顏 장군을, 제7구의 ‘淮西萬虎士’는 淮西 節度使 吳元濟의 반란군을 가리킨다. 李光顏은 벼슬이 司徒兼侍中에 이르렀기에 ‘李侍中’이라 한 것이다. 이 시의 인용한 부분은 李光顏이 淮西 節度使 吳元濟를 815년(헌종 10)부터 817년(헌종 12) 사이에 평정한 사건을 두고 읊은 것이다.

제1구~제8구에서는 李光顏의 武勇을 묘사하고, 제9구~제12구에서는 반란군을 평정하고 개선한 李光顏을 위해 ‘麟德殿’에서 성대하게 베푼 연회의 장면을 묘사하고, 제13·14구에서는 李光顏이 금의환향하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넓은 ‘毬場’에서 원숭이와 송골매를 동원한 성대한 연회 행사가 왁자지껄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宮女 즉 ‘三千宮女’가 연회의 모습을 보려는 것인지, 李光顏의 멋진 모습을 보려는 것인지, 머리를 빼딱하게 기울이며 자세히 바라보려다 자신들끼리 서로 밀치며 부딪히다 보니 雙玉 귀고리가 바닥에 떨어져서 밟히고 마는 어수선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성대한 연회가 베풀어지는 화려한 ‘麟德殿’의 모습에 대한 대유의 대상으로 ‘三千宮女’를 등장 시키고 있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의 옛 시에서 ‘三千宮女’가 화려한 궁궐에 대한 대유의 대상으로 쓰이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지는 않다. ‘三千宮女’가 唐代부터 이미 사치와 향락에 빠진 군왕에 대한 부정적 개념의 대유의 대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

다. ‘三千宮女’가 화려한 모습에 대한 긍정적 개념의 비유 대상으로 쓰이는 경우는 오히려 아름다운 자연의 의인화 대상으로 쓰이는 데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 이 논문은 주로 唐代의 시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아름다운 자연의 의인화 대상으로 三千宮女가 나오는 시는 이제 宋代의 것을 인용해보기로 한다. 李賀와 杜牧이 ‘三千宮女’를 화려한 궁궐에 대한 대유의 대상으로 사용한 것을 宋代의 시인들은 아름다운 자연의 의인화 대상으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려조 林椿, 李奎報의 한시에도 아름다운 자연의 의인화 대상으로서의 ‘三千宮女’가 제법 나타나므로, 고려대 이후의 우리 시단에 영향을 준 송대의 시를 살펴볼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실상 중국의 송대 이후, 우리의 고려대 이후 한시 가운데 三千宮女 관련 시는 아름다운 자연의 의인화 대상으로 쓰이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이 사실이다.

먼저 北宋 시대 邵雍의 「愁花吟」⁶⁰⁾과 南宋 초기 劉子翬의 「次韻張守酴醾」⁶¹⁾ 가운데 일부를 인용해본다.

삼천궁녀가 예복을 입었는데
 임 바라는 마음 같아서 모두 절로 아름답네.
 처음 봉우리 벌어진 때는 담박한 것 같더니
 반쯤 피어날 때는 정말로 요염하네.
 三千宮女衣宮袍, 望幸心同各自嬌.
 初似綻時猶淡薄, 半來開處特妖嬈.

무성한 꽃에 젊은 재상 부러워 않고
 좋은 때를 만나 화려한 숲 감상한다네.
 십만 푸른 가지는 비를 맞아 차갑고
 삼천 미인은 바람 앞에 웃고 있다네.
 榮華休羨黑頭公, 且對芳辰賞麗叢.
 十萬青條寒掛雨, 三千粉面笑臨風.

60) 邵雍 撰, 『擊壤集』 권6, 「愁花吟」. “(인용 부분 생략), 檀心未吐香先發, 露粉既垂魂已銷, 對此芳樽多少意, 看看風雨騁羈豪,”

61) 劉子翬 撰, 『屏山集』 권16, 詩, 「次韻張守酴醾二首」 중 제1수. “(인용 부분 생략), 莫將擬雪才情賦, 盍與觀梅興味同, 只恐春歸有遺恨, 典刑猶在濁醪中.”

주지하다시피 邵雍(1011~1077)은 朱熹가 성리학을 성립하는 데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이며, 劉子翬(1101~1147)는 朱熹의 스승이다. 邵雍은 화려하게 피운 아름다운 꽃을 예복을 갖추어 입은 ‘三千宮女’로 비유하고, 劉子翬는 봄을 맞아 푸른 나뭇가지와 어우러져 아름답게 피어있는 수많은 꽃을 ‘三千粉面’으로 표현하였다. ‘三千粉面’에서의 ‘粉面’은 ‘宮女’에게만 한정되지 않는 포괄적 의미의 ‘美人’을 가리키지만, ‘三千粉面’이란 말도 결국에는 ‘三千宮女’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三千粉面’은 곧 ‘三千宮女’인 셈이다. 그러므로 위의 두 작품은 모두 아름다운 자연을 대표하는 꽃의 의인화 대상으로 三千宮女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두 작품과 마찬가지로 南宋 시대의 시 중에서도 아름다운 자연의 의인화 대상으로 三千宮女를 수용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여기에서는 한정된 지면을 고려하여 喻良能(1120~?)의 「寄題梅山」,⁶²⁾ 袁說友(1139~1204)의 「和范石湖詠雙蓮」,⁶³⁾ 趙善括(?~?)의 「題馬氏避暑宮開福寺蓮湖」,⁶⁴⁾ 張翥(?~?)의 「題東湖」⁶⁵⁾ 가운데 일부를 차례로 인용해본다.

평생 귀 가득히 매산 애기 들었는데
십 리 걸쳐 연꽃이 나부끼고 있네.
궁녀 삼천은 얼굴이 아리답고
수놓은 옷 십만은 무늬가 아롱지네.
平生滿耳說梅山, 十里荷花繚繞間.
宮女三千顏綽約, 繡衣十萬綵爛斑.

神女の 비파 소리에 한은 많아지고
만 송이 붉은 꽃에 뜻이 더욱 깊어지네.
삼천가무를 안고 나와 놓아두니
푸른 김에 두 동심을 얻은 듯하네.

62) 喻良能 撰, 『香山集』 권8, 七言律詩, 「寄題梅山」. “(인용 부분 생략), 瀕江景好圖難盡, 飛鷺詩工語莫刪, 定約後期窮勝賞, 不辭和月棹船還.”

63) 袁說友 撰, 『東塘集』 권6, 七言絕句, 「和范石湖詠雙蓮三首」 중 제1수.

64) 趙善括 撰, 『應齋雜著』 권5, 五言古詩, 「題馬氏避暑宮開福寺蓮湖」. “金仙樓觀鬱嵯峨, 昔日曾開盛綺羅, 不見園林蒙錦繡, 空教鐘鼓喚笙歌, (인용 부분 생략).”

65) 林表民 編, 『天台續集別編』 권5, 「題東湖二首」(張翥) 중 제1수.

江妃瑟裏恨沈沈，萬點紅邊意轉深。
擁出三千歌舞罷，翠綃縈得兩同心。

꽃을 짝은 보배 벽돌은 푸른 이끼 끼어 있고
난간 기댄 갠 산은 푸른 소라 안고 있네.
서늘한 밤에 휘장과 깃발 있는 것 같으니
삼천궁녀가 버선 신고 물결 위를 걷는 듯하네.
印花寶甃封蒼蘚，倚檻晴山擁翠螺。
涼夜尙疑旌蓋在，三千宮女襪凌波。

노엄 푸는 훈훈한 바람 얼굴에 불어 서늘하니
끝없이 펼쳐진 연꽃이 맑은 향을 보내주네.
삼천궁녀가 푸른 비단 일산 속에서
모두 불그레한 얼굴에 주홍장⁶⁶⁾을 하고 있구나.
解慍薰風拂面涼，藕花極目送清香。
三千宮女青羅蓋，都作酡顏酒量妝。

위에 인용한 4수는 모두 연꽃을 ‘三千宮女’ 또는 ‘宮女三千’ 또는 ‘三千歌舞’로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서의 ‘三千歌舞’는 三千 명의 歌舞하는 사람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을 터인데, 이는 ‘三千宮女’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 이들 시를 포함하는 宋代 이후 후대의 시에서 三千宮女가 부정적이거나 어떤 고도의 상징적인 개념이 없이 아름다운 자연의 의인화 대상으로 쓰일 때는 대체로 李賀의 「上雲樂」에서 쓰인 ‘三千宮女’의 개념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터이다.

중국의 宋代 이후 또는 고려조 이후에는 三千宮女가 아름다운 자연의 의인화 대상으로 쓰일 때가 매우 많아졌는데, 이는 화려한 궁궐에 대한 대유 대상의 또 다른 모습, 변형된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말 중에도 ‘꽃 대궐’이라는 표현이 있으니, 자연을 아름답게 수놓은 꽃의 모습이 마치 궁궐을 아름답게 수놓은 三千宮女와 다르지 않다고 인식한 결과일 터이다.

66) 陶宗儀 撰, 『說郛』 권77하, 「妝臺記」(宇文氏). “美人妝面, 旣傅粉, 復以胭脂調勻掌中, 施之兩頰, 濃者爲酒量妝, 淺者爲桃花妝, 薄薄施朱以粉罩之爲飛霞妝.”

2. 총애를 받지 못하여 소외된 수많은 궁녀에 대한 定型化된 명칭

먼저 白居易의 「七德舞」⁶⁷⁾ 시 일부 구절을 인용해본다.

원망하는 여자 삼천 명을 궁궐에서 내보내고
사형수 사백 명이 자진해서 옥으로 돌아왔다고.⁶⁸⁾
怨女三千放出宮, 死囚四百來歸獄.

白居易(772~846)는 德宗, 憲宗~文宗, 武宗(재위 840~846) 때 주로 활동한 대표적인 中唐 시인이다. 이 「七德舞」는 白居易가 唐 건국 초기부터 전해오는 ‘七德舞’라는 춤을 보고서, 太宗이 난을 평정하고 王業을 일으킨 것을 찬미하고 唐의 國運이 무궁하기를 기원한 내용을 담은, 『古文眞寶』(前集)에도 수록된 유명한 작품이다.

여기에서 ‘怨女三千’을 출궁시켰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唐 太宗이 626년(武德 9) 8월에 즉위하며 宮女 3천여 명을 출궁시킨 사건, 즉 구중궁궐 깊숙한 곳에 갇혀 살며 오래도록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宮女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들이 출궁하여 결혼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건을 말한 것이다. 당시 출궁한 宮女의 수효를 『舊唐書』에서 ‘放掖庭宮女三千餘人’이라고 말하였으니, ‘怨女三千’에서의 ‘三千’은 구체적인 실제 수효에 기반한 成數인 것이다. 『後漢書』 소위 ‘掖庭三千’에서의 ‘三千’은 宮女의 구체적 수효를 말하는데, 李賀가 이를 전고로 삼아 「上雲樂」에서 ‘三千宮女’라는 시어를 사용한 것처럼, 白居易도 『舊唐書』 소위 ‘放掖庭宮女三千餘人’을 전고로 삼아 「七德舞」에서 ‘怨女三千’이라는 시어를 활용하고 있다.

67) 白居易 撰, 『白氏長慶集』 권3, 諷諭 3, 「七德舞」. “…… 怨女三千放出宮, (太宗, 常謂侍臣曰: ‘婦人幽閉深宮, 情實可愍. 今將出之, 任求伉儷. 於是, 令左丞戴胄給事中杜正倫, 於掖庭宮西門, 揀出數千人, 盡放歸. 死囚四百來歸獄. (貞觀六年, 親錄囚徒死罪者三百九十, 放出歸家, 令明年秋來就刑. 應期畢至, 詔悉原之.) ……」.”

68) 歐陽修 撰, 『新唐書』 권56, 刑法志 제46. “太宗, 欣然納之, 遂以寬仁治天下, 而於刑法尤慎. 四年, 天下斷死罪二十九人. 六年, 親錄囚徒, 閱死罪者三百九十人, 縱之還家, 期以明年秋即刑, 及期, 囚皆詣朝堂無後者. 太宗嘉其誠信, 悉原之.” (* 이 시에서는 『新唐書』 소위 ‘三百九十’를 成數를 써서 ‘四百’이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다음에 인용하는 白居易의 「後宮詞」⁶⁹⁾에서는 출궁 이전 ‘怨女三千’의 가련한 신세가 ‘三千宮女’라는 시어로 바뀌며 그대로 시화되어 있다.

비이슬 오는 곳은 오직 하나 은혜인데
어떻게 두루 궁중 모든 문에 미칠 수 있으리오?
삼천궁녀의 꽃같이 단장한 얼굴들
몇이나 될까, 봄바람에 눈물 자국 없는 이가.
雨露由來一點恩, 爭能遍却及千門.
三千宮女如花面, 幾箇春風無淚痕.

이 작품의 ‘三千宮女’는 군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여 소외된 수많은 궁녀 전체이다. ‘三千’은 「七德舞」에서와 같이 太宗 대의 ‘怨女三千’ 출궁 사건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구체적인 수효로 읽힐 수도 있지만, 반드시 특정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군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여 소외된 모든 궁녀의 가련한 모습이다. 그러기에 여기에서의 ‘三千宮女’는 군왕의 총애를 받지 못해 소외된 수많은 궁녀에 대한 정형화된 명칭이라 할 수 있다.

이제 元稹의 「上陽白髮人」⁷⁰⁾을 살펴보자. 「上陽白髮人」은 총 32구로 된 작품인데, 여기에서는 제1~제16구를 인용해본다.

천보 연간에 화조사가
꽃과 새를 놀리며 봄 생각을 머금었네.
비빈 구한다는 조서를 가득 품고
높은 누각에 달려 올라가니 반쯤은 취하였네.
취하여 벼슬아치 집안에도 곧장 들어가니
규방에서 남몰래 회피할 수가 없었다네.
낭군은 나를 보며 마음으로 사별하는 듯하고
소녀는 아버지 부르며 피눈물을 흘렸다네.

69) 白居易 撰, 『白氏長慶集』 권19, 律詩.

70) 元稹 撰, 『元氏長慶集』 권24, 樂府. (* ‘郭茂倩 輯, 『樂府詩集』 권96, 新樂府辭, 新題樂府 상, 元稹, 「上陽白髮人」에는 ‘狎鳥’가 ‘鸛鳥’로, ‘顧妾’이 ‘顧望(一作妾)’으로, ‘十中有一’이 ‘十中一得(一作十中有一)’로, ‘得更衣’가 ‘預更衣’로 ‘永配’가 ‘九配’로 되어 있다).

열에 하나만이 更衣의 기회 얻는지라
 길이 깊은 궁궐에서 宮婢가 되었다네.
 御馬가 남으로 달아나고 胡馬가 닥쳐오자
 궁녀 삼천 명이 같은 궁궐에 버려졌네.
 궁문이 닫히자 다시는 열리지 않아서
 상양궁 화초가 이끼 낀 땅에서 자라네.
 달밤에 낙수의 물소리 한가롭게 들리고
 가을 못에 나부끼는 연꽃 향기만 가만히 지나가네.
 天寶年中花鳥使, 擿花狎鳥含春思.
 滿懷墨詔求嬪御, 走上高樓半酣醉.
 醉酣直入卿士家, 閨闈不得偷迴避.
 良人顧妾心死別, 小女呼爺血垂淚.
 十中有一得更衣, 永配深宮作宮婢.
 御馬南奔胡馬蹙, 宮女三千合宮棄.
 宮門一閉不復開, 上陽花草青苔地.
 月夜閒聞洛水聲, 秋池暗度風荷氣.

元稹(779~831)은 憲宗~文宗 때 주로 활동한 대표적인 中唐 시인이다. 元稹은 白居易와 同榜 급제자로서 평생 詩友로 지내며, 세칭 ‘元白’으로 알려졌다. 제목에서의 ‘上陽’은 上陽宮을 말한다. 上陽宮은 唐 高宗 때 지어진 東都 洛陽에 있는 皇宮이고, ‘白髮人’은 시 내용에서 묘사하고 있는 노년의 어떤 宮女를 말한다.

白居易도 「上陽白髮人」⁷¹⁾이라는 동일한 제목의 시를 지었다. 白居易에 의하면, 746년(玄宗 35, 天寶 5) 이후로는 楊貴妃가 玄宗의 총애를 독차지하여 後宮들은 다시는 侍寢할 수가 없었고, 六宮의 미색이 있는 宮女들은 갑자기 별도의 장소로 옮겨졌는데, ‘上陽宮’은 그중의 하나라고 한다. 上陽宮의 白髮宮女는 元稹과 白居易가 활동하던 德宗의 貞元年間까지도 아직 남아 있었다고 한다.

제1구~제8구에서는 玄宗 天寶年間(742~756)에 ‘花鳥使’의 횡포에 의해 ‘卿士家’의 여식임에도 불두하고 낭군 및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어쩔 수 없이 宮女로 뽑혀

71) 白居易 撰, 『白氏長慶集』 권3, 諷諭 3, [新樂府并序. 凡二十首, 元和四年爲左拾遺時作.] 「上陽白髮人」. 愍怨曠也. {天寶五載已後, 楊貴妃專寵, 後宮人無復進幸矣. 六宮有美色者, 輒置別所, 上陽是其一也. 貞元中尙存焉.} “(시 생략).”

들어온 신세를 말하였다. ‘花鳥使’는 天寶年間に 황제를 위하여 온 나라에서 후궁으로 들이기 위한 미녀를 찾으러 다녔던 使者들을 말한다.⁷²⁾ 제9·10구에서는 수많은 宮女 가운데 열에 하나 정도만이 ‘更衣’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자신은 영원토록 ‘宮婢’의 신세로 전락한 가련한 처지를 말하였다, ‘更衣’는 宮女로서 侍寢의 기회를 얻는 것으로 보인다. 漢 武帝가 平陽公主의 집에 行幸하였을 때 武帝가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을[更衣]’ 때에 衛子夫가 옆에서 시중을 들다가 총애를 받게 되어 황후가 되었던 고사⁷³⁾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지며, 여기에서는 ‘총애를 받는, 侍寢을 하는 宮女’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⁷⁴⁾

제11구·12구에서는 安史의 난으로 인해 玄宗이 낙양의 上陽宮을 버리고 달아나고 반란군들이 낙양으로 쳐들어오면서, 수많은 宮女가 上陽宮에 방치되었다고 하였다. 上陽宮에 방치된 수많은 宮女를 ‘宮女三千’으로 표현하였다. 원래 高宗(재위 649~683) 때부터 玄宗(재위 712~756) 때까지 唐 조정이 낙양의 上陽宮에 있었는데, 755년에 발발한 安史의 난 때 上陽宮이 크게 파괴되었다. 이후 唐 조정이 西都 長安으로 옮겨가면서 上陽宮도 점차 황폐해져 德宗 때 폐기되었다고 한다. 白居易에 의하면 貞元年間에도 上陽宮이 아직 남아 있었다고 하니, 이 시의 주인공인 白髮宮女가 남아 있던 上陽宮은 그야말로 폐허가 된 상태였을 것이다. 이어 제13구~제16구에서는 폐허가 된 上陽宮에 방치된 白髮宮女를 포함한 수많은 宮女の 쓸쓸한 신세를 읊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에서의 ‘宮女三千’은 구체적인 수효와는 상관이 없는, 군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여 소외된 수많은 宮女の 정형화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72) 宋祁 撰, 『新唐書』 권202, 列傳 제127, 文藝 중, 呂向. “玄宗開元十年, 召入翰林兼集賢院校理, 侍太子及諸王爲文章. 時帝歲遣使采擇天下姝好, 內之後宮, 號花鳥使, 向因奏『美人賦』以諷, 帝善之, 擢左拾.” (* 『元氏長慶集』의 ‘天寶年中花鳥使’ 아래에도 “(天寶中, 密號採取豔異者, 爲花鳥使.)” 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73) 班固 撰, 顏師古 注, 『前漢書』 권97상, 外戚列傳 제67상. “武帝卽位, 數年無子, 平陽主求良家女十餘人, 飾置家. 帝被霸上還, 過平陽主. 主見所侍美人, 帝不說. 既飲, 謳者進, 帝獨說子夫. 帝起更衣, 子夫侍向衣軒中, 得幸. 還坐驪甚, 賜平陽主金千斤, 主因奏子夫送入宮.”

74) 徐陵 撰, 『玉臺新詠』 권7, 梁簡文帝詩四十三首. “舞女及燕姬, 倡樓復蕩婦, 參差大戾發, 搖曳小垂手, 釣竿蜀國彈, 新城折楊柳, 玉案西王桃, 蠡柸石榴酒, 甲乙羅帳異, 辛壬房戶暉, 夜夜有明月, 時時憐更衣.”(『執筆戲書』) (* 여기에서도 ‘更衣’는 侍寢을 위한 ‘宮女’의 의미로 쓰였다).

다음으로는 白居易의 그 유명한 「長恨歌」⁷⁵⁾를 보자. 총 120구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제5구~8구, 제17~제20구를 인용해본다.

타고난 고운 자질 그대로 묻힐 리 없어
하루아침에 뿔혀 군왕 곁에 있게 되었네.
머리 돌려 한 번 웃으면 온갖 교태 생겨나서
육궁의 단장한 미녀들 안색을 잃었다네.

.....

총애를 받아 잔치에 모시느라 한가할 틈이 없어
봄에는 봄나들이 따라가고 밤에는 밤을 독차지했네.
후궁에 아름다운 여인이 삼천 명인데
삼천 명이 받을 총애가 한 몸에 다 내려졌네.

天生麗質難自棄，一朝選在君王側。

回頭一笑百媚生，六宮粉黛無顏色。

.....

承歡侍宴無閒暇，春從春遊夜專夜。

後宮佳麗三千人，三千寵愛在一身。

‘六宮粉黛’가 곧 ‘後宮佳麗三千人’이니, 시어를 재조합해보면 ‘六宮粉黛’가 곧 三千粉黛이고, 三千粉黛는 三千宮女와 다르지 않다. 三千宮女가 나누어 받아야 할 총애를 楊貴妃가 독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楊貴妃가 총애를 독차지함으로 인해 玄宗에게 총애를 받지 못하여 소외된 수많은 宮女가 곧 ‘後宮’의 ‘三千人’ 즉 三千宮女이니, 여기에서의 ‘三千人’은 玄宗의 총애를 받지 못하여 소외된 수많은 宮女의 정형화된 명칭일 뿐이다.

다음은 李商隱의 「槿花」⁷⁶⁾를 살펴보자.

바람과 이슬 치량하고 가을 경치는 무성한데
가련하도다, 피고 짐이 아침, 저녁 사이라네.

75) 白居易 撰, 『白氏長慶集』 권12, 感傷 4.

76) 朱鶴齡 撰, 『李義山詩集注』 권2하. (* ‘未央宮裏三千女’ 아래에 “(漢武故事. 上起光明宮, 發燕·趙美女三千人充之, 建章·未央·長樂三宮, 皆輦道相屬.)”이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미양궁 안 삼천 여자는
다만 홍안은 지켜도 은총은 지키지 못했다네.
風露淒淒秋景繁, 可憐榮落在朝昏.
未央宮裏三千女, 但保紅顏莫保恩.

李商隱(812~858)은 풍부한 전고와 화려한 字句를 구사하여 당대 유희주의 문학의 극치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를 받는 晚唐 시인이다. 제목의 ‘槿花’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無窮花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것으로 유명하다.⁷⁷⁾ 그래서 제1·2구에 이처럼 말한 것이다. 이어 제3·4구에서 ‘未央宮’ 안 ‘三千女’를 언급한 것은, 앞서서 언급하였던 武帝가 明光宮을 짓고 거기에 燕·趙 지역의 미녀 ‘三千人’을 뽑아서 채웠다고 하며, 建章宮, 未央宮, 長安宮 등의 모든 전각에 있는 宮女의 수효가 무려 1만8천 명에 이르렀다고 하는 기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盛唐 시인 李白이 武帝와 陳皇后와 衛皇后 사이에 얹힌 사연을 바탕으로 삼아서 「妾薄命」⁷⁸⁾을 지었는데, 「妾薄命」에는 비록 三千宮女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군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여 소외된 陳皇后의 박복한 처지가 시화되어 있다. 李白의 「妾薄命」에서의 이 사연과 漢 武帝가 3천 명의 엄청난 수의 宮女를 두었다는 이야기가 결합하며, 晚唐 시인 李商隱이 「槿花」에서 군왕의 총애를 얻지 못 소외된 수많은 宮女를 이처럼 읊고 있다. 이 시에서의 ‘未央宮裏三千女’은 곧 三千宮女와 다르지 않은 표현으로, 이 또한 결국 군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여 소외된 수많은 宮女의 정형화된 명칭이다.

77) 高誘注, 『呂氏春秋』 권5, 仲夏紀 제5, 五月紀. “半夏生木槿榮.(半夏藥草. 木槿, 朝榮暮落. 是月, 榮華可用作蒸. 雜家謂之朝生, 一名薺. 詩云: ‘顏如薺華’, 是也.)”

78) 李白撰, 『李太白文集』 권3, 歌詩四十首, 樂府 2, 「妾薄命」. “漢帝重(一作寵)阿嬌, 貯之黃金屋, 咳唾落九天, 隨風生珠玉, 寵極愛還歇, 妬深情却疎, 長門一步地, 不肯暫回車, 雨落不上天, 水覆重難收(一作難重收), 君情(一作恩)與妾意, 各自東西流, 昔日芙蓉花, 今成斷根草(一作素秋草), 以色事他人, 能得幾時好.”

3. 宮外の 시선으로 바라보는 宮內 신하들에 대한 寓意의 대상

주지하다시피 宮女와 신하의 처지는 유사한 점이 많다. 군왕의 존재는 오로지 하나인데, 宮女와 신하의 수요는 매우 많다. 그래서 宮女와 신하는 모두 군왕의 제한된 사랑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그 경쟁에서 밀려나 군왕의 총애를 잃고 어딘가에 유폐되는 宮女도 있고, 군왕의 신망을 잃고 벼슬에서 밀려나거나 외직으로 좌천되어 궁궐을 떠나야 하는 신하도 있다. 군왕의 총애를 잃고 어딘가에 유폐된 宮女の 처지에서 궁궐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공간이다. 그리고 그 궁궐에 있는 다른 宮女들은 부러움의 대상이다. 벼슬에서 밀려나거나 외직으로 좌천되어 군왕이 있는 궁궐을 떠나 있는 사람의 처지에서 궁궐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공간이다. 그리고 그 궁궐에 있는 신하들은 부러움의 대상이다.

그래서 종종 시인들은 벼슬에서 밀려나거나 외직으로 좌천된 처지에서 宮内の 신하들에 대한 부러움과 궁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어딘가에 유폐된 宮女가 궁내의 宮女들을 부러워하며 다시 궁내로 복귀하여 군왕의 총애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마음에 비유하여 읊는다. 즉 宮外の 시선으로 바라보는 宮內 신하들에 대한 우의의 대상으로 궁내의 수많은 宮女 즉 三千宮女를 등장시킨다. 이는 楊巨源의 「月宮詞」⁷⁹⁾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궁궐 안에 달 밝으면 무엇과 같다 할까?
 쌓인 듯 흐르는 듯 처소마다 가득하리.
 正殿 멀리 지날 때는 일찍이 미인 교태 배웠고
 장문궁을 돌아 비출 때는 버릇처럼 눈물 흘리리.
 昭陽殿에 어젯밤 가을바람 불어올 때
 화려한 전각 황금 문이 맑은 달빛에 열렸으리.
 조정⁸⁰⁾의 꽃무늬들에 함께 여기저기 비추고
 옥 계단의 맺힌 이슬에 서로 망설이며 비추리.

79) 李昉 等 編, 『文苑英華』 권152, 天部 2, 雜題月, 「月宮詞」(楊巨源). (* 제6구의 '淸影'이 『文苑英華』에는 '淸影'으로 되어 있고 '淸'자 아래에 '疑'라고 주석을 달고 있다. 필자의 견해로도 '淸'자는 의미상 자연스럽지 않다. 이에 '曹學佺 編, 『石倉歷代詩選』 권64, 中唐十八, 楊巨源, 「月宮詞」에 의거하여 '淸'자를 '淸'자로 바로잡았다).

80) 반자널에 꽃무늬를 그린 소란 반자.

銀河를 점점 비추어 임금이 행차하여
 달빛은 창에 가득, 옷을 갈아입던 곳에 있구나.
 악기 소리가 촛불에 돌 때 정이 무한하여
 패옥 차고 난간에 기대서는 돌아갈 수가 없었네.
 휘영청 아득한 달은 천 리 멀리에서도 다 같으니
 안개 뚫고 휘날리는 앞이 구중궁궐까지 날아가려나.
 주렴을 걷고자 하니 두려움이 물을 이루고
 자리를 펼치고자 하니 놀라움에 텅 빈 것 같네.
 다시 군왕을 만나 기쁜 잔치 별인다면
 궁녀 삼천 명이 일제히 바라보리라.
 수레로 달려가서 낮게 뜬 흰 달무리를 근심스레 보며
 술잔을 올리며 두루 펼쳐진 맑은 빛을 밝고 싶구나.
 강 위에 구름 없는 이 밤이 가련하니
 모래 밟고 물결 헤치며 절로 아름답네.
 풍류스러운 밤을 마음으로 함께 즐긴다고 한들
 높고 높은 太液池 앞과 어찌 비할 수 있으리오?
 宮中月明何所似，如積如流滿田地。
 迴過前殿曾學眉，迴照長門慣催淚。
 昭陽昨夜秋風來，綺閣金鋪清影開。
 藻井浮花共陵亂，玉階零露相徘徊。
 稍映明河泛仙馭，滿窓猶在更衣處。
 管弦迴燭無限情，環珮憑欄不能去。
 皎皎蒼蒼千里同，穿煙飄葉九門通。
 珠簾欲卷畏成水，瑤席初陳驚似空。
 復值君王事歡宴，宮女三千一時見。
 飛蓋愁看素量低，稱觴願踏清輝遍。
 江上無雲夜可憐，冒沙披浪自嬋娟。
 若共心賞風流夜，那比高高太液前。

楊巨源(770?~?)은 元和年間을 전후로 활동한 문신이자 시인으로, 白居易, 元稹, 劉禹錫 등과 교유한 中唐 시인이다. 楊巨源은 漢代에 군왕이 있는 궁궐에서 밀려난 어떤 宮女가 ‘月宮’ 즉 달을 매개로 삼아서 군왕이 있는 궁궐로 다시 돌아가서 충애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형식을 빌려서, 장안의 궁궐과 천 리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면서 궁궐의 군왕에게 돌아가고픈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 아마도 앞서 언급 하였던 陳皇后 阿嬌의 고사를 염두에 두고 지은 작품이 아닌가 한다. 楊巨源은 비록 높은 벼슬을 하지는 못했다고는 하나, 789년에 진사에 급제한 이후 평생토록 이러저 러한 벼슬살이를 하다가 840년 무렵 70세쯤에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났으니, 이 작품 은 아마도 그가 외직으로 나가 있을 때 지은 작품일 터이다.

제1구~제4구에서는 궁궐을 환히 비추는 달을 주체로 삼아서 陳皇后 阿嬌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달은 군왕의 마음을 표상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달빛이 ‘前殿’ 즉 군왕이 있는 正殿을 멀리 비추며 지나갈 때는 일찍이 군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 미인의 교태를 배웠다고 하였고, 달빛이 長門宮, 즉 武帝가 衛子夫를 총애하게 되면서 陳皇后 阿嬌를 투기를 한다는 이유로 소박하여 유폐하였던 長門宮을 돌아서 비출 때는 버릇처럼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제5구~제8구에서는 漢代 에 后妃가 주로 거처하던, 즉 武帝의 寵姬였던 傾國之色과 絕世佳人으로 유명한 李延年의 동생 李夫人 등이 거주하였던 昭陽殿의 황금 문이 맑은 달빛과 함께 활짝 열리 자, 군왕과 后妃가 어우러져 있는 질편한 모습을 매우 상징적으로 묘사하였다.

제9구~제12구에서는 앞서서 언급하였던 武帝와 衛子夫 관련 고사를 시화한 것이다. 武帝의 누나 平陽公主의 집에 衛子夫라는 歌女가 있었는데, 武帝가 平陽公主 집의 연회 석상에서 衛子夫를 보고 좋아하여, 武帝가 ‘更衣’ 즉 옷을 갈아입으려 할 때 衛子夫가 尚衣軒에서 시중을 들다가 총애를 받게 되었던 고사⁸¹⁾를 언급하였다. 이로 인해 陳皇后 阿嬌는 결국 투기를 하다가 武帝에게 소박을 맞아 長門宮에 유폐가 되었다. 이어 제13구~제16구에서는 長門宮에 유폐된 陳皇后 阿嬌의 심사를 묘사하고 있다. 마음으로는 군왕이 있는 구중궁궐로 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제17구~제20구에서는 다시 군왕을 만나서 기쁜 잔치를 벌이고 싶은 마음을 토로 하였다. 그렇게 되면 ‘宮女三千’이 일제히 바라보며 자신을 부러워하리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흰 달무리[素暈]’는 달빛 즉 군왕의 총기를 가리는 존재들이고, ‘맑은 빛[淸輝]’은 곧 군왕의 바른 마음을 뜻하니, 다시 궁궐로 돌아가서 자신을 포함하였던 宮女들을 다 몰아내고 군왕의 총애를 회복하여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표현

81) 班固 撰, 顏師古 注, 『前漢書』 권97상, 外戚列傳 제67상. “帝起更衣, 子夫侍尚衣軒中, 得幸.”

한 것이 된다. 그런데 현실은 자신의 마음과 같지 않음을 제21구~제24구에서 표현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밝은 달빛이 비치는 이 밤이 참으로 가련하거나, 모래를 밟고 물결을 헤치고 있는 달빛은 부질없이 아름답다. 그러기에 풍류 가득한 이 밤을 마음으로나마 군왕과 함께하고 있다고 여기며 즐기고자 해도, 武帝가 세운 宮苑 안의 연못인 太液池 앞에서의 잔치에 어찌 비할 수 있겠느냐고 한탄한다.

주지하다시피 陳皇后 阿嬌가 투기로 인해 長門宮에 유폐된 뒤에 司馬相如가 문장이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는 그에게 황금 백 근을 주고는 글 한 편을 지어주기를 청하자, 司馬相如가 「長門賦」를 지어주었는데, 武帝가 그 글을 읽고 나서 陳皇后 阿嬌를 다시 총애하게 되었다고 한다.⁸²⁾ 이처럼 楊巨源 또한 「月宮詞」라는 작품 속에, 長門宮에 유폐된 陳皇后 阿嬌가 군왕이 있는 궁궐로 다시 복귀하여 武帝의 총애를 다시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외직에 있는 작자 자신 또한 내직으로 승차하여 군왕을 다시 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투영한 것이 아닌가 한다. 宮外の 시선으로 바라보는 宮內 신하들에 대한 우의의 대상으로 ‘宮女三千’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李洞의 「寓言」⁸³⁾을 인용해본다.

삼천궁녀가 고운 미모 뽐을 내니
 황금빛 차를⁸⁴⁾ 웃으며 달여도 하루하루가 더디구나.
 기린과 봉황도 구름에 막혀 올라갈 수 없으니
 빈산에 쓸쓸하게 석양이 기우는 때라네.
 三千宮女露蛾眉, 笑煮黃金日日遲.
 麟鳳隔雲攀不及, 空山惆悵夕陽時.

82) 蕭統 編, 李善 註, 『文選』 권16, 哀傷, 「長門賦」(司馬長卿). “孝武皇帝陳皇后, 時得幸, 頗妒, 別在長門宮, 愁悶悲思. 聞蜀郡成都司馬相如, 天下工爲文, 奉黃金百斤, 爲相如, 文君取酒, 因于鮮悲愁之辭, 而相如爲文以悟主上, 陳皇后復得親幸, 其辭曰: (작품 생략).”

83) 洪邁 編, 『萬首唐人絕句』 권36, 七言, 「寓言」(李洞). (* ‘康熙帝 勅命, 『御定全唐詩』 권723, 李洞, 「寓言」에는 ‘日日遲’가 ‘日月遲’로 되어 있다).

84) 여기에서의 ‘黃金’은 ‘황금빛 새싹 찻잎[黃金芽]’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 祝穆 撰, 『古今事文類聚』 續集 권12, 香茶部, 古詩, 「走筆謝孟諫議寄新茶」(盧仝) “…… 仁風暗結珠琲瑠, 先春抽出黃金芽, ……”.)

李洞(?~897?)은 晚唐 시인으로, 昭宗(재위 888~906) 때 여러 차례 낙제한 후 실의 하여 蜀 지역을 왕래하며 떠돌다가 죽었다고 한다. 제1·2구에서는 궁궐 안의 ‘三千宮女’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를 대비하였다. 궁궐 안에서는 ‘三千宮女’가 모두 군왕의 총애를 차지하기 위해 고운 미모를 뽑내고 있다. 그런데 자신은 궁궐 밖에서 차만 달이고 있다. 웃으며 차를 달이는 것은 원망하는 마음 없이 군왕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하루하루가 더디다고 하였다. 군왕과의 만남에 대해 기다림이 절실한 것이다.

「寓言」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 작품은 다른 사물에 빗대어 자기 생각을 은연중에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궁궐 안의 ‘三千宮女’는 실상 궁궐 안의 수많은 신하를 비유하고 있다. 그래서 제3·4구에는 더욱 직접적으로 작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麟鳳’은 걸출한 인재를 비유하고, ‘雲’은 군왕과 걸출한 인재의 만남을 방해하는 존재를 비유한다. 구름 위에 天上의 공간, 즉 군왕이 거처하는 궁궐이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걸출한 인재들조차도 궁궐 안의 군왕을 만나 뵈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은 석양이 기우는 빈산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쓸쓸한 처지이다. 李洞은 「寓言」을 통해서 宮外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宮內 신하들에 대한 우의의 대상으로 ‘三千宮女’를 수용하여, 궁궐 안의 신하들에 대한 부러움, 자신도 하루빨리 그 신하들에 포함되어 임금을 모시고 싶다는 소망을 절실하게 토로하고 있다. 그래서 제목도 「寓言」인 것이다.

다음은 牛嶠의 「楊柳枝五首」⁸⁵⁾ 가운데 제4수를 인용해본다. 이 작품 역시도 宮外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宮內 신하들에 대한 우의의 대상으로 三千宮女를 수용하고 있지만, 三千宮女를 부러움의 대상이 아닌 경계의 대상으로 읊고 있다는 점에서 결이 다르다.

세찬 눈보라가 바람 따라 말을 치며 날리는 것 같고
 엉킨 안개에 힘이 없고, 바람에 기운 것 같네.
 영화전에 옮겨 들이고 사귀지 말아라
 궁녀 삼천 명이 또한 너를 질투할 터이니.
 狂雪隨風撲馬飛, 惹烟無力被風欹.
 莫交移入靈和殿, 宮女三千又妬伊.

85) 郭茂倩 輯, 『樂府詩集』 권81, 近代曲辭, 「楊柳枝五首」(牛嶠) 중 제4수. (* 康熙帝 勅命, 『御定全唐詩』 권667, 牛嶠, 「楊柳枝五首」 중 제4수에는 ‘被風欹’가 ‘被春欺’로 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牛嶠(850?~920?)는 穆宗 때 재상을 지낸 牛僧孺의 후예인데, 875년(僖宗 2)부터 884년(僖宗 11)까지 계속된 黃巢의 난, 907년 당나라 망국, 五代十國의 하나인 前蜀의 건국으로 이어지는 난세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이다. 878년(僖宗 5)에 진사에 급제하였으나 급제 후 2년 만에 黃巢의 반군에 의해 長安이 함락되고, 僖宗朝의 이러한 혼란 속에서 拾遺, 補闕, 尚書郎 등을 역임하였다. 886년(僖宗 13)에 襄王 李媼의 난을 피하고자 우선 吳越에서 유랑하고 후에 巴蜀에서 기거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891년(昭宗 3) 이후에 西川節度使 王建의 부름에 의해 判官이 되고, 王建에 의해 907년에, 五代十國의 십국 중 하나인 前蜀이 건국되자 여기에서 秘書監과 給事中을 역임하다가 죽었다.

牛嶠은 이와 같은 혼란한 정국 속에서 위의 시를 지은 것인데,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 이 작품은 ‘楊柳枝’를 읊은 것이다. 제1수는 버들개지[柳絮]가 눈과 같이 어지럽게 날아다니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고, 제2구는 안개와 어우러지고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그야말로 멋들어지고 화려한 모습이다. 이어 제3·4구는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다. 南朝 齊 武帝가 일찍이 蜀의 버드나무를 靈和殿 앞에 옮겨서 심어두고 완상하며, “이 버드나무는 風流가 사랑스러워서 張緒의 젊었을 때와 똑같다.”라고 말하였다는 고사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張緒는 젊을 때부터 文才가 있었고 風姿가 청아하였다고 한다.⁸⁶⁾

즉 제1·2구에서 묘사한 그 버드나무를 ‘靈和殿’ 안에 옮겨 심음으로 인해서 그 풍류가 ‘宮女三千’의 질투를 받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靈和殿’ 안에 옮겨 심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화자 스스로가 三千宮女의 질투가 횡행하는 곳, 즉 신하들 간에 시비 다툼이 치열한 궁궐 안에는 가고 싶지 않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三千宮女를 宮外の 시선으로 바라보는 宮內 신하들에 대한 우의의 대상으로 수용하였으되, 三千宮女를 부러움의 대상이 아닌 경쟁해야 하는 위태로운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楊巨源이나 李洞의 작품과는 차이가 있다.

86) 李延壽 撰, 『南史』 제31, 列傳 제21, 張裕(緒). “劉俊之爲益州, 獻蜀柳數株, 枝條甚長, 狀若絲縷. 時舊宮芳林苑始成, 武帝以植於太昌靈和殿前, 常賞玩咨嗟曰: ‘此楊柳風流可愛, 似張緒當年時.’ 其見賞愛如此.”

4. 사치와 향락에 빠져 망국을 초래한 군왕에 대한 代喩의 대상

먼저 陳羽 소작 「姑蘇臺覽古」⁸⁷⁾를 살펴보자.

예전 오왕이 패권 다투던 날 생각건대
노랫소리 가득한 채 고소대에 올랐었지.
삼천궁녀 꽃을 구경하던 곳에
인적 없이 누대는 비고 꽃만 절로 피었구나.
憶昔吳王爭霸日, 歌謠滿耳上蘇臺.
三千宮女看花處, 人靜臺空花自開.

陳羽(?~?)는 貞元年間, 元和年間に 활동한 中唐 시인이다. 제목에서의 ‘姑蘇臺’는 吳王 夫差가 姑蘇山 위에 쌓은 누대이다. 제1·2구에서는 과거를 회고하고, 제3·4구에서는 현재의 감회를 읊었다.

먼저 夫差의 아버지 闔閭가 越王 句踐에게 패하여 죽임을 당하자, 夫差가 그 유언을 받들어 臥薪하다가 B.C.494년에 결국 越나라를 공격하여 굴복시키던 때를 회고하고 있다. 당시에 夫差가 越나라 미인 西施를 얻어 宮妓 수천 명과 함께 ‘姑蘇臺’에서 일삼았던 온갖 사치와 향락에 대해 회고하는 것이다.⁸⁸⁾ 夫差가 西施와 함께 姑蘇臺에서 황음을 일삼고 伍子胥의 간언도 듣지 않자, 伍子胥가 “신이 이제 姑蘇臺에 사슴들이 뛰노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⁸⁹⁾라고 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吳는 瓦신상담하던 越王 句踐에게 패망을 당하고 말았다.

그런데 과거에 西施를 비롯한 姑蘇臺의 ‘三千宮女’가 꽃을 구경하던 사치와 향락은 안개처럼 다 사라져버렸다. 인적은 간데없이 姑蘇臺가 텅 비어, 이제는 꽃들만 부질없

87) 鄭虎臣 編, 『吳都文粹』 권2, 「姑蘇臺覽古」(陳羽). (* ‘阮閱 撰, 『詩話總龜』 권14, 留題門 상’에는 ‘滿耳’가 ‘滿路’로, ‘人靜’이 ‘人盡’으로 되어 있고, ‘康熙帝 勅命, 『御定全唐詩』 권348, 陳羽, 「姑蘇臺懷古」’에는 ‘歌謠滿耳’가 ‘歌鐘滿地’로, ‘人靜臺空’이 ‘人盡臺崩’으로 되어 있다).

88) 任昉 撰, 『述異記』 권상. “吳王夫差, 築姑蘇之臺, 三年乃成, 周旋詰屈, 橫亘五里, 崇飾土木, 殫耗人力. 宮妓數千人, 上別立春宵宮, 爲長夜之飲, 造千石酒鍾. 夫差作天池, 池中造青龍舟, 舟中盛陳妓樂, 日與西施爲水嬉. 吳王於宮中, 作海靈館·館娃閣, 銅溝玉檻, 宮之楹檻, 皆珠玉飾之.”

89) 張守節 撰, 『史記正義』 권118, 淮南衡山列傳 제58. “子胥諫吳王, 吳王不用, 乃曰: ‘臣今見麋鹿游姑蘇之臺也.’”

이 피어있더라는 것이다. 이 꽃들은 아마도 西施를 비롯한 三千宮女의 화신이라. 물론 여기에서의 ‘三千宮女’는 구체적인 수효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西施를 비롯한 姑蘇臺에 머물렀던 수많은 미인을 말할 뿐이다. 사치와 향락에 빠져 망국을 초래한 吳王 夫差에 대한 대유의 대상이며, 회고의 정과 무상감을 환기하는 대상인 것이다. 다음 시는 殷堯藩 소작 「館娃宮」⁹⁰⁾이다.

궁녀 삼천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니
진주와 푸른 것이 티끌로 변했다네.
부차의 옛 나라 오래도록 부서졌지만
붉은 제비 절로 돌아오고 꽃도 절로 피었다네.
宮女三千去不回, 眞珠翠羽是塵埃.
夫差舊國久破碎, 紅鷺自歸花自開.

이 작품 역시도 ‘宮女三千’을 사치와 향락에 빠져 망국을 초래한 吳王 夫差에 대한 대유의 대상으로 읊은 작품이다. 殷堯藩(780?~855)은 中唐에서 晚唐에 걸쳐 활동한 시인으로, 許渾과 교우하고 中唐 시인 白居易와도 왕래가 있었다고 한다. 제목에서의 ‘館娃宮’은 吳王 夫差가 姑蘇臺 뒤에 있는 靈巖山 위에 西施를 위해 지은 궁이다. ‘娃’는 곧 西施를 의미하는 것이다.⁹¹⁾ 이 시는 압운자가 앞서 인용한 陳羽의 「姑蘇臺覽古」와 같고, 결국 마지막이 陳羽의 시와 같이 ‘花自開’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姑蘇臺覽古」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眞珠翠羽’는 ‘宮女三千’이 온몸의 치장을 위해 사용하였던 진주 및 진귀한 보배들을 말한다. 과거 ‘宮女三千’의 향락과 사치를 표상하는 말이다. 그런데 ‘宮女三千’은 모두 세상을 떠나버리고 그 宮女들을 치장하였던 보배들도 모두 티끌로 변해버렸다고 하였다. 그야말로 무상감의 표현이다. 그런데 이 시에서 진실로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은 ‘宮女三千’이 아니다. ‘宮女三千’과 더불어 향락에 빠졌다가 망국을 초래하였던 吳王 夫差이다. 그래서 과거의 화려했던 성사는 간데없이 남은 것이라고는 붉은

90) 計敏夫 撰, 『唐詩紀事』 권51, 殷堯藩. “堯藩 …… 又有「館娃宮」詩云: ‘(시 생략).’” (* ‘康熙帝 勅命, 『御定全唐詩』 권492, 殷堯藩, 「館娃宮」에도 같은 시가 실려 있다).

91) 李賢 等 撰, 『明一統志』 권8, 蘇州府, ‘宮室館娃宮’. “[在靈巖山上, 前臨姑蘇臺. 吳人謂美女爲娃, 蓋以西施得名. 「吳都賦」: ‘幸乎吳娃之館, 張女樂而娛羣臣’]”

제비와 꽃뿐이다. 그러기에 여기에서의 ‘宮女三千’ 또한 사치와 향락으로 망국을 초래한 吳王 夫差에 대한 대유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徐凝 소작 「汴河覽古」⁹²⁾를 보도록 하자.

양제의 용주가 이곳을 지나가니
삼천궁녀 채색 배는 경쾌했으리.
변하 지날 때, 지금 노래 같았을 것 같지는 않으니
어느 조정에 대한 원망의 소리였을까?
煬帝龍舟向此行, 三千宮女采橈輕.
渡河不似如今唱, 爲是誰家怨思聲.

徐凝(?~?)은 元和年間に 명성을 떨친 中唐 시인으로 크게 현달하지는 못하였지만, 中唐의 대표 시인 元稹과 白居易로부터는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일찍이 “일생에 만난 바는 오직 元稹, 白居易뿐이니, 천하에 布衣를 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없구나.”⁹³⁾라고 한탄하였다. 제목에서의 ‘汴河’는 隋 煬帝가 개통한 운하로 당시에는 通濟渠라 하였다. ‘龍舟’는 煬帝가 강남을 순행할 때 타던 배이다. ‘誰家’는 ‘楊家’ 즉 隋 조정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煬帝는 이름이 楊廣으로 楊氏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煬帝는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汴河에 배를 띄워 廣陵(=江都, 揚州)으로 놀러 가면서, 자신은 ‘龍州’를 타고 蕭皇后 및 수많은 宮女 즉 ‘三千宮女’를 태운 수백 척의 호화로운 배를 뒤따르게 하면서 갖은 사치를 부리며 백성을 괴롭혔다. 그러므로 隋 당시에 煬帝의 행차가 汴河를 지나갈 때, 당시의 백성들은 隋 왕조를 원망하는 노래를 불렀으리라는 것이다. 결국 煬帝는 汴河 주위 隋宮에서 宇文化及에게 처참하게 시해되며 隋의 망국을 초래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徐凝 당시의 ‘今唱’은 어떤 것이었을까? 함축성이 오묘하다. 그러기에 여기에서의 ‘三千宮女’ 또한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백성을 괴롭히며 망국을 초래한 隋 煬帝에 대한 대유의 대상이라고

92) 洪邁 編, 『萬首唐人絕句』 권67, 七言, 「汴河覽古」(徐凝). (* ‘康熙帝 勅命, 『御定全唐詩』 권474, 徐凝, 「汴河覽古」에는 ‘誰家’가 ‘楊家’로 되어 있다).

93) 辛文房 撰, 『唐才子傳』 권4, 徐凝. “徐凝{按『唐詩紀事』, 凝, 睦州人.}, 有詩名, 無進取之意, 始遊長安, 不忍自衒鬻, 竟不成名. 將歸以詩辭韓吏部云: ‘一生所遇惟元白, 天下無人重布衣, 欲別朱門淚先盡, 白頭遊子白身歸.’{按此傳, 有關文.}”

할 수 있다.

다음은 許渾의 「汴河亭」⁹⁴⁾을 인용해본다.

광릉에 꽃 무성해 양제가 동유하고자
먼저 곤륜산의 한 갈래 물줄기를 뚫었다네.
일당백⁹⁵⁾ 황군은 궁궐을 떠나고
삼천궁녀도 용주를 뒤따랐네.
시끌벅적한 북소리가 별들을 진동하고
물결에 일렁이는 깃발에 해와 달이 떠오르는 듯하네.
천하의 의로운 군사가 道 있는 곳으로 돌아갔으니
양제의 미루는 도리어 진 후주의 경양루와 같았다네.
廣陵花盛帝東遊, 先劈崑崙一派流.
百二禁兵辭象闕, 三千宮女下龍舟.
凝雲鼓震星辰動, 拂浪旗開日月浮.
四海義師歸有道, 迷樓還似景陽樓.

許渾(788?~861?)은 율시에 뛰어나고 시국을 우려하는 내용의 시를 많이 지은 晚唐 시인이다. 「汴河亭」은 隋 煬帝가 汴河 주위에 세운 수많은 行宮 가운데 하나이다. 許渾 당시까지도 汴河亭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1·2구에서 ‘東遊’라고 한 것은 汴河가 黃河에서 갈라져 남동쪽으로 향하다가 淮水와 합류하기 때문이다.

제1·2구에서는 煬帝가 廣陵으로 꽃 구경을 가기 위해 汴河를 개통하였다고 하였고, 제3구~제6구에서 수많은 황군 및 ‘三千宮女’가 함께하고 있는 煬帝 행차의 위세와 사치스러움을 표현하였으니, 여기에서의 ‘三千宮女’ 또한 사치스러움이 가득한 隋 煬帝에 대한 대유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 제7·8구에서는 무도함으로

94) 許渾 撰, 『丁卯詩集』 권상, 近體詩, 七言律詩. (* 원문 제2구의 ‘崑崙’에는 ‘一作黃河’라는 주석이, 제6구의 ‘旗’에는 ‘宋本作旂’이라는 주석이, 제8구의 ‘還似’에는 ‘一作何異’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95) ‘百二’는 100분의 2를 나타낸다. 戰國 시대에 秦나라의 지세가 매우 험고하여 군사 2만 명으로 다른 나라의 군사 100만 명을 당해 내기에 충분하다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그러므로 ‘百二禁兵’은 ‘二當百 황군’을 뜻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一當百 황군’으로 번역하였다. (* 張守節 撰, 『史記正義』 권8, 高祖本紀 第8. “秦形勝之國, 帶河山之險, 縣隔千里, 持戟百萬, 秦得百二焉.”).

인해서 결국 망국을 초래한 煬帝의 황음과 사치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迷樓’는 煬帝가 만년에 황음과 사치를 극도로 하여 역부 수만 명을 동원해서 廣陵의 汴河 주위에 세운 광대하고도 화려한 누각이고,⁹⁶⁾ ‘景陽樓’는 南朝 陳의 ‘景陽宮’을 가리킨다. 陳 後主가 張貴妃, 孔貴嬪 등 자신이 총애하는 미희들과 향락을 즐기다가 隋의 침공을 받았을 때 景陽宮의 우물 속에 몸을 숨겼다가 사로잡혔다는 고사가 전한다.⁹⁷⁾ 사치와 향락에 빠져 隋에 망한 陳 後主와 唐에 망한 隋 煬帝를 동일시하고 있다. 다음 역시 許渾의 작으로, 「送沈卓少府任江都」⁹⁸⁾이다.

양제의 도성 봄 강물 가에
 생황 노래 부르며 밤에 목란선에 오르리.
 삼천궁녀가 절로 참혹하게 죽었었고
 십만 인가가 仙界처럼 텅 비었었네.
 탐스러운 꽃가지에 관아는 저물 거고
 겹겹의 구름 모습에 절 담장은 이어지리.
 소년이 縣尉가 되었으니 모름지기 삼가서
 누대 앞에서 말채찍을 떨어뜨리지 말게나.
 煬帝都城春水邊, 笙歌夜上木蘭船.
 三千宮女自塗地, 十萬人家如洞天.
 艷艷花枝官舍晚, 重重雲影寺牆連.
 少年作尉須兢慎, 莫向樓前墜馬鞭.

제목에 보면 江都의 少府(縣尉의 별칭)로 부임하는 沈卓이란 사람을 전송하며 지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의 ‘江都’는 廣陵(揚州)을 말한다. 제1·2구의 ‘都城’은 ‘江都’의 汴河 가에 있는 隋 煬帝의 별궁인 隋宮(江都宮)으로, 앞에서 언급한 ‘迷樓’의 다른 이름이다. 또한 618년에 宇文化及에 의해 江都의 隋宮에서 煬帝와 수많은 황족과

96) 陶宗儀 撰, 『說郛』 권66하, 「南部烟花記」(馮贄), ‘迷樓’. “迷樓, 凡役夫數萬, 經歲而成. 樓閣高下, 軒窗掩映, 幽房曲室, 玉欄朱楯, 互相連屬. 帝大喜顧左右曰: ‘使真仙遊其中, 亦當自迷也.’ 故云.”
 97) 陶宗儀 撰, 『說郛』 권68상, 「六朝事迹」(張敦頤), ‘景陽井’. “臺城中景陽宮井也. 按南史, 隋克臺城, 陳後主與張麗華孔貴妃, 俱入井, 隋軍出之.”
 98) 許渾 撰, 『丁卯詩集』 권상, 近體詩, 七言律詩, 「送沈卓少府任江都(或作趙嘏詩)». (* 원문 제3구의 ‘自’에는 ‘一作日’이라는 주석이, 제8구의 ‘墜’에는 ‘宋本作墮’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宮女들이 모두 학살을 당했던 바로 그곳이다. 제7·8구의 ‘樓前’은 ‘迷樓’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바로 이곳 江都의 縣尉로 부임을 하는 젊은 나이의 沈卓에게 황음으로 인해 망국을 초래하였던 隋 煬帝의 고사를 환기하며, 관리로서 항상 정신을 바짝 차려 자신을 스스로 경계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처럼, 앞에 인용한 시에서뿐만 아니라 이 작품에서도 許渾은 사치와 향락에 빠진 煬帝에 대한 대유의 대상으로 ‘三千宮女’라는 소재를 수용하고 있다.

다음 역시 許渾의 작으로, 「凌歊臺」⁹⁹⁾라는 작품이다.

송조가 드높이 올라 즐기면서 돌아가지 않고
삼천가무와 층층 누대에서 머물렀다네.
상강에 구름 다 흩어져 저녁 산이 드러나고
파촉에 눈이 녹아 봄물이 흘러오네.
行宮은 터만 남아 냉이 풀이 우거지고
陵園에는 주인 없이 짙레꽃만 피어있네.
백년 인생에 만년 계책을 만들었으니
바윗가 옛 비석에는 부질없이 푸른 이끼만 끼어 있네.
宋祖凌高樂未回, 三千歌舞宿層臺.
湘潭雲盡暮山出, 巴蜀雪消春水來.
行殿有基荒薺合, 寢園無主野棠開.
百年便作萬年計, 岳畔古碑空綠苔.

제1·2구의 ‘宋祖’는 南朝 宋의 제1대 황제인 武帝 劉裕를 가리키고, ‘凌高’는 ‘凌歊’로 되어 있는 데도 있다고 하였다. ‘凌歊’는 더운 기운을 씻어낸다는 뜻이다. 제목의 ‘凌歊臺’는 安徽省 黃山 위에 있는 누대이다.

99) 許渾 撰, 『丁卯詩集』 권상, 近體詩, 七言律詩, 「凌歊臺」(當塗縣西, 宋高祖築, 今太平州.) (* 원문 제1구의 ‘高’에는 ‘一作歊’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方回 編, 『瀛奎律髓』 권3, 懷古類, 七言, 「凌歊臺」(當塗縣西, 宋高祖築)(許渾)에는 ‘凌高’가 ‘凌歊’로, ‘空綠苔’가 ‘生綠苔’로 되어 있다. 그리고 시 작품 아래에 “劉裕起於布衣, 節儉之主, 三千歌舞之句, 不近諷否? ……”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그런데 元代의 方回는 劉裕가 布衣에서 일어나 節儉하는 군주였으니, ‘三千歌舞’라는 구절은 무고에 가깝지 않느냐고 비판하였다. 明代의 楊慎 또한 제1·2구의 ‘三千歌舞’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武帝 劉裕는 탐욕이 적어서 신분이 낮을 때부터 검소하여 宮女가 지극히 적었는데, 後秦의 황제 姚興의 從女를 얻고 나서 盛寵이 있어서 자못 정사를 폐하게 되니, 謝晦가 충간을 하므로 곧바로 내보냈다고 하는데, 어찌 ‘三千歌舞’의 일이 있었겠느냐고 반문하며, 許渾이 뭘 몰라서 이리 옳은 것이라고 강렬하게 비판하였다.¹⁰⁰⁾

그러나 역사적 사실의 시비를 떠나서 어찌 되었든 이 시에서 許渾은 ‘宋祖’ 즉 武帝 劉裕를 사치와 향락에 빠져 망국을 초래한 군왕으로 그리고 있다. 許渾 소작 「凌歊臺」의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후대의 시에서도 武帝 劉裕에 대해 비판적으로 그리는 경우가 없지 않으니, 예컨대 조선 후기의 東溪 朴泰淳(1653~1704)은 「凌歊臺」에서 “음악 올리는 높은 누대에서 취하여 깨어나지 못했으니(歌管高臺醉不醒)”라고 하며, 武帝 劉裕의 향락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¹⁰¹⁾

제1·2구에서는 宋의 武帝 劉裕가 황제가 된 후에 남쪽으로 유람하다가 이곳 凌歊臺에 올라 行宮을 짓고는 수많은 宮女와 더불어 향락을 즐기며 되돌아갈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황음에 빠졌던 사연을 읊었다. 제3·4구에서는 작자 許渾의 시야에 들어오는 凌歊臺 주변의 원경을 묘사하였고, 제5·6구에서는 근경을 묘사하였다. ‘三千歌舞’와 더불어 성대한 연회가 베풀어졌던 行宮과 武帝 劉裕의 능원도 이제는 다 무너져 사라져버리고, 냉이 풀과 짙레꽃으로만 남아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의 ‘三千歌舞’는 ‘三千宮女’라는 표현과는 다소 다르다고 볼 수도 있다. ‘三千歌舞’는 후대의 시에 수없이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許渾의 「凌歊臺」에서 처음 등장하

100) 楊慎 撰, 『譚苑醍醐』 권5, ‘三千歌舞’. “許渾凌歊臺詩曰: ‘宋祖凌歊樂未回, 三千歌舞宿層臺.’ 此宋祖, 乃劉裕也. 『南史』稱宋祖, 清簡寡欲, 儉於布素, 嬪御至少. 嘗得姚興從女, 有盛寵, 頗廢事, 謝晦微諫, 卽時遣出, 安得有三千歌舞之事也? 審如是, 則是石勒之鄴宮, 煬帝之江都矣. 渾非有意於誣前代, 但胸中無學, 目不觀書, 徒弄聲律以僥倖一第, 機關用之既熟, 不覺於懷古之作亦發之, 而後之淺學如楊仲弘·高棅·郝天挺之徒, 選以爲警策, 而村學究又誦以教蒙童, 是以流傳至此不廢耳.”

101) 朴泰淳, 『東溪集』 권2, 詩, 「凌歊臺」. “歌管高臺醉不醒, 田翁那免笑寧馨, 鷄鳴埭口歸來夜, 風外遙聞九子鈴.” (* 여기에서의 ‘鷄鳴埭’는 晚唐 시인 李商隱, 「南朝」 제1·2구, “玄武湖中王漏催, 雞鳴埭口繡襦迴.”(李商隱 撰, 『李義山詩集』 권상.)를 전고로 삼은 것이고, ‘笑寧馨’은 北宋 시인 蘇軾, 「平山堂次王居卿祠部韻」 제7·8구, “六朝興廢餘丘壘, 空使姦雄笑寧馨.”(蘇軾 撰, 『東坡全集』 권6, 詩九十九首)을 전고로 삼은 것이다).

는 것으로 보인다.

후대의 시 중에는 ‘三千歌舞’가 ‘三千歌舞妓’의 의미로 쓰이는 예도 있지만,¹⁰²⁾ ‘三千宮女’의 의미와 구분되지 않고 쓰이는 경우도 많고, 이 시에서도 많은 수효의 宮女를 나타내는 ‘三千宮女’의 의미로 쓰였다. 여기에서도 역시 사치와 향락에 빠진 武帝 劉裕에 대한 대유의 대상으로 ‘三千歌舞’라는 소재를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조에 이르러 金訢이 「落花巖」에서 ‘三千歌舞委沙塵’이라 읊고, 朴淳이 「落花巖」에서 ‘三千歌舞金宮女’라 읊은 것도 許渾의 「凌歊臺」에서 영향을 받았을 터이다. 제7·8구에서는 유구한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일개 영웅의 백 년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다. 제1·2구에서의 과거와 제5·6구에서의 현재의 극적인 대비를 통해 역사의 무상감을 강조해서 표현한 것이다.

IV. 결론

이 논문은 몇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검토가 시작되었다. 첫째는 현재까지도 부여의 낙화암과 관련하여 三千宮女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둘째는 낙화암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三千宮女라는 표현은 지극히 문학적인 것으로서 조선조 한시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실상 ‘三千宮女’라는 네 글자가 낙화암을 소재로 한 조선조 한시에서는 의외로 잘 찾아지지 않고, 오히려 고려조 林椿이나 李奎報의 한시에서 수많은 꽃의 아름다운 모습의 의인화 대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조사해본 결과 역대 한국과 중국 한시에 공통으로 ‘三千宮女’, ‘宮女三千’, ‘三千歌舞’, ‘歌舞三千’, ‘三千粉黛’, ‘粉黛三千’, ‘三千粉面’, ‘粉面三千’, ‘三千玉女’, ‘三千女’, ‘三千人’, ‘三千妾’ 등의 표현이 많이 나오고, 특히 한국 한시에는 ‘三千佳妓’, ‘三千後宮’, ‘三百後宮’, ‘三千楚舞’, ‘三千翠娥’, ‘三千舞女’, ‘三千娥媚’, ‘三千侍女’, ‘三千錦繡’, ‘三千美女’, ‘三千妝女’ 등과 같은 중국 한시

102) 黃佐 撰, 『泰泉集』 권6, 五言律詩, 「南征詞六首」 중 제5수. “柳啖金陵暮, 花搖玉帳春, 江淮明砲火, 閭闔動梁塵, 秘戲徵西域, 迷樓構北辰, 三千歌舞妓, 誰似掌中人.”

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표현도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표현들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내적으로는 모두 연관성이 있으리라는 전제하에 이 논문은 시작이 되었다.

이에 이 논문은 三千宮女와 관련한 표현의 다양한 의미와 그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중국의 역대 문헌과 한시를 대상으로 삼아서 三千宮女의 개념과 유래, 문학적 의미에 대해 검토하였다. 낙화암과 관련하여 三千宮女를 다룬 조선조 한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의 한시에 나타난 三千宮女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제 본문에서 검토한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이어가고자 한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三千은 수효가 많은 것을 가리킨다. 원래는 구체적인 수효를 나타내던 것에서 막연하게 수효가 많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三千宮女에서의 三千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원래는 구체적인 宮女의 수효를 나타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막연히 많은 宮女의 수효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三千이란 숫자가 위진 남북조 시대 초기부터 이미 막연히 많은 수효를 나타내는 의미로 한시 문학에서 시어로 활용되기 시작하다가, 唐代에 이르러 많은 수효의 宮女를 三千이라는 숫자와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三千宮女로 표현하게 되었다. 이처럼 많은 수효의 宮女를 三千이라는 숫자와 연결하여 부르게 된 데에는 『後漢書』에서의 ‘掖庭三千’이나 『漢武故事』에서의 ‘燕趙美女三千人’, 『舊唐書』에서의 ‘掖庭宮女三千餘人’ 등의 유명한 고사도 영향을 주었을 터이다.

三千宮女가 하나의 전형화된 표현으로 굳어지게 된 것은 중국의 唐代, 구체적으로는 中唐과 晚唐 시대 시인들의 한시를 통해서이다. 三千宮女는 中唐 元和年間の 시인들의 한시에서부터 전형화가 시작되어 중국의 宋代 및 한국의 고려조를 거쳐 후대로 이어지며 지속하여 사용되는 지극히 문학적 표현이다. 그렇다면 三千宮女가 한시의 시어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唐代 문학 작품 속에서의 三千宮女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첫째, 三千宮女는 화려한 궁궐에 대한 代喻 또는 아름다운 자연의 擬人化 대상의 의미를 지닌다. 『後漢書』 소위 ‘掖庭三千’에서의 ‘三千’은 宮女의 구체적인 수효를 말하는데, 이를 전고로 삼아서 中唐 시인 李賀는 「上雲樂」에서 唐代 궁궐의 수많은 宮女를 ‘三千宮女’라는 막연히 많은 宮女의 수효로 표현하였다. 「上雲樂」에서의 ‘三千宮女’는 千秋節 연회가 베풀어지는 花萼樓의 화려하고 장엄한 장면에 대한 대유의

대상으로 쓰였으며, 晚唐 시인 杜牧의 「郡齋獨酌」에서의 ‘三千宮女’도 성대한 연회가 베풀어지는 麟德殿의 화려한 모습에 대한 대유의 대상으로 쓰였다.

그런데 三千宮女가 唐代부터 이미 사치와 향락에 빠진 군왕에 대한, 부정적 개념의 대유의 대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옛 시에서 화려한 궁궐에 대한 대유의 대상으로 쓰이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다. 오히려 아름다운 자연의 의인화 대상으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는 宋代 이후의 시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北宋 시대 邵雍은 「愁花吟」에서 화려하게 피운 아름다운 꽃을 예복을 갖추어 입은 ‘三千宮女’로 비유하였고, 南宋 초기 劉子翬는 「次韻張守酴醾」에서 봄을 맞아 수많은 푸른 나뭇가지와 아름답게 어우러져 피어있는 수많은 꽃을 ‘三千粉面’으로 표현하였다. 아름다운 자연을 대표하는 꽃의 의인화 대상으로 ‘三千宮女’를 수용하고 있다.

이는 邵雍, 劉子翬 이후의 南宋 시대 여러 시인의 한시에서 지속해서 나타나고, 고려조의 林椿, 李奎報의 한시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처럼 중국의 宋代 이후 또는 고려조 이후에는 三千宮女가 아름다운 자연의 의인화 대상으로 쓰일 때가 매우 많아졌는데, 이는 李賀의 「上雲樂」에서 쓰인 ‘三千宮女’의 개념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말 중에도 ‘꽃 대궐’이라는 표현이 있으니, 이는 자연을 아름답게 수놓은 꽃의 모습이 마치 궁궐을 아름답게 수놓은 三千宮女의 모습과 같다고 인식한 결과일 것이다.

둘째, 三千宮女는 총애를 받지 못하여 소외된 수많은 宮女에 대한 정형화된 명칭의 의미를 지닌다. 中唐 시인 白居易의 「後宮詞」에서는 군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여 소외된 수많은 宮女에 대한 정형화된 명칭으로 ‘三千宮女’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中唐 시인 元稹의 「上陽白髮人」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元稹은 폐허가 된 上陽宮에 방치된 白髮宮女를 포함한 ‘宮女三千’의 쓸쓸한 신세를 읊고 있는데, 이 시에서의 ‘宮女三千’ 또한 구체적인 수효와는 상관이 없는, 군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여 소외된 수많은 宮女の 정형화된 명칭인 것이다.

白居易는 또한 「長恨歌」에서 楊貴妃가 총애를 완전히 독차지함으로 인해 玄宗에게 총애를 받지 못하는 수많은 宮女를 정형화하여 ‘後宮佳麗三千人’이라고 묘사하였으니, 여기에서의 ‘三千人’은 막연히 많은 宮女의 수효에 해당한다. 晚唐 시인 李商隱도 「槿花」에서 군왕의 총애를 얻지 못한 박복한 宮女들을 ‘未央宮裏三千女’로 표현하였는데, 여기에서의 ‘三千女’ 또한 군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여 소외된 수많은 宮女の

정형화된 명칭일 뿐이다.

셋째, 三千宮女는 宮外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宮內 신하들에 대한 寓意의 대상의 의미를 지닌다. 中唐 시인 楊巨源은 「月宮詞」에서 長門宮에 유폐된 陳皇后 阿嬌가 궁궐로 다시 복귀하여 武帝의 총애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외직에 있는 작자 자신 또한 내직으로 승차하여 군왕을 다시 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투영하고 있다. 宮外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宮內 신하들에 대한 우의의 대상으로 ‘宮女三千’을 등장시키고 있다. 晚唐 시인 李洞의 「寓言」에서 또한 궁궐 안의 신하들에 대한 부러움, 자신도 하루빨리 그 신하들에 포함되어 임금을 모시고 싶다는 소망을 절실하게 토로하기 위해 우의의 대상으로 ‘三千宮女’를 등장시키고 있다.

그런데 晚唐 시인으로서 당나라 망국을 전후로 하는 난세를 온몸으로 겪었던 牛嶠의 「楊柳枝」에서는 三千宮女를 부러움의 대상이 아닌 경계의 대상으로 읊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작품들과 결이 다르다. 이는 화자 스스로가 ‘宮女三千’의 질투가 횡행하는 곳, 즉 신하들 간에 시비 다툼이 치열한 궁궐 안에는 가고 싶지 않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宮女三千’을 宮外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宮內 신하들에 대한 우의의 대상으로 수용하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닌 경쟁해야 하는 위태로운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

넷째, 三千宮女는 사치와 향락에 빠져 망국을 초래한 군왕에 대한 代喻의 대상의 의미를 지닌다. 中唐 시인 陳羽는 「姑蘇臺覽古」에서 과거에 西施를 비롯한 ‘三千宮女’가 꽃을 구경하던 사치스럽고 호화롭던 姑蘇臺에 이제는 쓸쓸하게 꽃들만 부질없이 피어있다고 하였다. 이 꽃들은 西施를 비롯한 ‘三千宮女’의 화신이니, 여기에서의 ‘三千宮女’는 사치와 향락에 빠져 망국을 초래한 吳王 夫差에 대한 대유의 대상이다. 中唐에서 晚唐에 걸쳐 활동한 시인 殷堯藩의 「館娃宮」에서의 ‘宮女三千’ 또한 망국을 초래한 吳王 夫差에 대한 대유의 대상이다.

그리고 中唐 시인 徐凝의 「汴河覽古」에서의 ‘三千宮女’는 廣陵으로 놀러 가면서 卞河에서 蕭皇后를 비롯한 ‘三千宮女’를 태운 수백 척의 호화로운 배를 뒤따르게 하면서 백성을 괴롭혀서 망국을 초래하였던 隋 煬帝에 대한 대유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고, 晚唐 시인 許渾의 「汴河亭」과 「送沈卓少府任江都」에서의 ‘三千宮女’ 역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아울러 許渾은 「凌歊臺」에서 南朝 宋의 武帝 劉裕를 ‘三千歌舞’와 더불어 凌歊臺에 머물면서 사치와 향락에 빠져 망국을 초래한 군왕으로 그리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三千歌舞’ 역시도 많은 수효의 宮女를 나타내는 三千宮女의 의미로 쓰였고, 이는

사치와 향락에 빠진 군왕에 대한 代喻의 대상이다. ‘三千歌舞’라는 표현은 許渾의 「凌歊臺」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사치와 향락에 빠진 武帝 劉裕에 대한 대유의 대상으로 ‘三千歌舞’라는 소재를 수용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金訢이 「落花巖」에서 ‘三千歌舞委沙塵’이라 읊고, 朴淳이 「落花巖」에서 ‘三千歌舞金宮女’라 읊은 것도 許渾의 「凌歊臺」에서 영향을 받았을 터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필자의 이 논문은 唐代 漢詩에 나타난 三千宮女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한시 문학에 나타난 三千宮女 연구(Ⅱ)-한국 작품을 중심으로」와 「한시 문학에 나타난 백제의 三千宮女 연구」로 이어지는 3부작 연작 가운데 1부작에 해당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金訢, 『顔樂堂集』(韓國古典翻譯院 DB)

南孝溫, 『秋江集』(韓國古典翻譯院 DB)

閔齊仁, 『立巖集』(韓國古典翻譯院 DB)

朴淳, 『思菴集』(韓國古典翻譯院 DB)

朴泰淳, 『東溪集』(韓國古典翻譯院 DB)

李建昌, 『明美堂集』(韓國古典翻譯院 DB)

李奎報, 『東國李相國集』(韓國古典翻譯院 DB)

林椿, 『西河集』(韓國古典翻譯院 DB)

曹偉, 『梅溪集』(韓國古典翻譯院 DB)

江淹 撰, 『江文通集』(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康熙帝 勅命, 『御定全唐詩』(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計敏夫 撰, 『唐詩紀事』(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高誘 注, 『呂氏春秋』(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郭茂倩 輯, 『樂府詩集』(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歐陽修 撰, 『新唐書』(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歐陽詢 撰, 『藝文類聚』(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厥名 撰, 『錦繡萬花谷後集』(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陶宗儀 撰, 『說郛』(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班固 撰, 顏師古 注, 『前漢書』(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潘自牧 撰, 『記纂淵海』(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方回 編, 『瀛奎律髓』(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裴駰 撰, 『史記集解』(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白居易 撰, 『白氏長慶集』(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范曄 撰, 李賢 注, 『後漢書』(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徐陵 撰, 『玉臺新詠』(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邵雍 撰, 『擊壤集』(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蕭統 編, 李善 註, 『文選』(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宋祁 撰, 『新唐書』(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辛文房 撰, 『唐才子傳』(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蘇軾 撰, 『東坡全集』(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楊慎 撰, 『譚苑醍醐』(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吳正子 註, 劉辰翁 評, 『箋註評點李長古歌詩』(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阮閱 撰, 『詩話總龜』(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王勃 撰, 『王子安集』(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王溥 撰, 『唐會要』(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王欽若 等 撰, 『冊府元龜』(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袁說友 撰, 『東塘集』(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元稹 撰, 『元氏長慶集』(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劉昫 撰, 『舊唐書』(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喻良能 撰, 『香山集』(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劉子翬 撰, 『屏山集』(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劉向 撰, 『列仙傳』(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劉歆 撰, 葛洪 輯, 『西京雜記』(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陸楫 編, 『古今說海』(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李鍇 撰, 『尚史』(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李昉 等 編, 『文苑英華』(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李白 撰, 『李太白文集』(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李商隱 撰, 『李義山詩集』(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李延壽 撰, 『南史』(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李賀 撰, 『昌谷集』(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李賢 等 撰, 『明一統志』(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任昉 撰, 『述異記』(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林表民 編, 『天台續集別編』(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林希逸 撰, 『莊子口義』(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張守節 撰, 『史記正義』(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鄭玄 注, 陸德明 音義, 孔穎達 疏, 『禮記注疏』(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鄭虎臣 編, 『吳都文粹』(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趙善括 撰, 『應齋雜著』(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曹學佺 編, 『石倉歷代詩選』(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朱鶴齡 撰, 『李義山詩集注』(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祝穆 撰, 『古今事文類聚』(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托克托 等 修, 『宋史』(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許渾 撰, 『丁卯詩集』(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胡震亨 撰, 『唐音彙編』(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洪邁 編, 『萬首唐人絕句』(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黃滔 撰 『黃御史集』(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黃佐 撰 『泰泉集』(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황인덕, 「부여 낙화암 전설의 형성과 전개」, 『한국문학논총』 29, 한국문화회, 2001

『백제뉴스』 2017년 7월 31일자: (<http://www.ebaekj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006>)

『스카이데일리』 2021년 3월 10일 자: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25204)

『中国当代佛教网-佛教辞典』: (<http://fojiaocidian.cn/index.html>)

A Study on Three Thousand Court Ladies in Chinese Poetry(I) — Focusing on Tang Dynasty Works

Nam, Jae-Cheol

This essay is intended to find the source of the expression Three Thousand Court Ladies used in connection with Nakhwaam Rock. To this end, the concept and origin of Three Thousand Court Ladies were first reviewed based on the historical records of China, and then the literary meaning of Three Thousand Court Ladies in Tang Dynasty poems was reviewed.

Three Thousand Court Ladies were originally used to represent the specific numbers of court ladies, but from some point on, it was used to represent the a vague number of numerous court ladies. It was through Tang Dynasty poems that Three Thousand Court Ladies were hardened into a typical expression.

There are four literary meanings of Three Thousand Court Ladies in Tang Dynasty poems.

The first meaning is the synecdochical object of the luxurious palace or the prosopopoeial object of the beautiful natural scenery. The second meaning is the formulaic name of numerous court ladies who were alienated because they were not favored by king. The third meaning is the object of allegory for officials in the palace from the perspective outside the palace. And the fourth meaning is the synecdochical object of the king who caused national ruin by luxurious pleasure-seeking.

Key Words : Nakhwaam Rock, Palace, Natural Scenery, Court Ladies, Officials,
King

